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5년 9월호

리아호나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995년 9월~2015년 9월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하고 지킴, 12쪽
결혼생활을 향상하여
자녀를 축복함, 18쪽
결혼의 율법을
마음속에 새김, 24쪽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누가복음 12:6~7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가족과 기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힘차고, 영광으로 가득함

특집 기사

- 12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오늘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싸움에 동참하는 세 가지 방법.
- 18 결혼 생활을 향상함으로써 자녀를
축복함
로리 클러프 셰이드
결혼 생활의 질은 여러분이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 24 성전과 결혼의 자연 질서
브루스 시 하펜 장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결혼의 질서를 따름으로써, 남편과
아내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다.
- 30 교회 지침서—명문화된 질서
페르 지 맘 장로
여러분의 부름의 의무에 관해 배우고
싶은가? 교회 정책에 관한 질문이
있는가? 교회 지침서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 36 후기 성도들은 시에라리온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노먼 시 힐
시련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안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5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기도—어머니의 선물
익명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구주의 방문
로렌조 스노우 회장

표지
앞표지 사진: 코디 벨
앞표지 안쪽 사진 삽화: 데이비드 스토커
뒤표지 안쪽 사진: 크레그 다이몬드



48

44 나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느꼈다.
 청년 성인들이 평안과 희망, 힘을 찾기 위해 구주의 속죄를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었는지를 나눈다.

48 과테말라의 신앙 문화
 리사 로페즈
 이 청년 성인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우정을 증진함으로써 삶에서 축복을 받는다.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물문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 50**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법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르
 회개의 다섯 가지 측면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이 근본적인 원리를 보는 방법이 변화될 것입니다.
- 51** 포스터: 생수를 찾으십시오
- 52** 머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멜빈 론달라
 그는 가족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 54**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덕슨
 우리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학교 성적이 반드시 미래의 잠재력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 56** 세상에 속하지 않음
 오늘날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구주의 명령을 여러분은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
- 59** 해답을 찾아서
- 60** 세미나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은 세미나리에 참석하기 위해 희생을 하지만, 세미나리로 얻는 것들을 생각하면, 세미나리는 그런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 모두 동의한다.
- 62**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트레비스 설
 현재 세미나리는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제공한다.
- 64** 우리들 공간

54



73

- 66** 신약 전서 성경 인물: 탕자
- 67** 우리의 여성 지도자
- 69** 빛나는 아이디어
- 70** 린지의 가족 퍼즐
 질 해킹
 린지의 아빠는 가족 역사가 퍼즐을 맞추는 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설명했다.
- 72** 가족 이야기 퀴즈
 캐롤린 콜든
 가족과 함께 이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 73** 특별한 증인: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는가?
 델린 에이치 옥스 장르
- 74** 기쁘게 도움
 에이 제인 레빗
 윌리엄과 여동생들이 마당에 쌓인 낙엽을 다 긁어모으고 기뻐하고 있을 때 이웃집 마당이 보였다.
- 76** 경전 속으로: 성찬—예수를 상기시킴
 에린 샌더슨
- 7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새로운 느낌
 프란시스레인 우르퀴디 파르판 베세르
 가족과 함께 물문경을 읽는 동안, 가브리엘은 전에는 느껴 보지 못했던 것을 느꼈다!

2015년 9월호 제52권, 제9호

리아호나 12569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편집위원장: 토마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럼,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사도장 위원회: 러셀 엠 벨스,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처드 피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디

고문: 랜달 케이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카든,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리사 캐롤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리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해킹, 살라 카카발, 민디 앤 레넷, 마이클 알 로리스, 셸리 존슨 오오키카, 조슈아 제이 퍼키, 켈린 로우, 리처드 엠 롬니, 폴 벤텐버그, 머리사 윌슨

편집인턴: 엘리스 탄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코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앤 벨렌리,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핑클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코트 엠 무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지식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온

제작 장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콘니 바스프 브릿지, 줄리 버넷,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낄슨, 가일 타데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스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약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통권: 제594호, 제52권, 제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장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에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돌풍신청** 교회 잡지

구독서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September 2015 Vol. 39 No. 9.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음”, 56쪽: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페리 장로가 우유잔을 들기로 결심했던 경험을 읽어 본다.(57쪽에 있는 그의 이야기를 참고한다.)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창의적인 방법들을 가족이 함께 토론해 본다. 예를 들면, 여러 친구들이 부적절한 영화나 외설물을 보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셉 스미스 또는 결혼, 순결의 법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가족이 함께 이런 질문들에 대답할 때, 그리스도의 모범을 기억한다.

“새로운 느낌”, 78쪽: 기사를 함께 읽은 후, 성신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토론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22~23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온유, 부드러움, 신앙, 그리고 희망을 줌); 요한복음 14:26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함); 열매서 19:6 (어둠을 빛으로 바꿈); 모로나이서 10:5 (진리를 드러내 보임); 교리와 성약 6:14~15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함); 8:2~3 (머릿속에 생각을, 또 마음에 느낌을 줌)과 같은 성구를 활용한다. 여러분이 성신을 느꼈던 경험담을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magazine에 가서 가정의 밤 제언과 일요일 공과 도움말,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감어린 메시지를 찾아보십시오.[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가족 역사, 69, 70, 72

가족, 4, 12, 18, 24, 70, 72

개종, 41

결혼, 12, 18, 24

기도, 4, 10, 41, 43, 54

기술, 12

단정함, 59

모범, 4, 56

물문경, 78

봉사, 40, 74

선교 사업, 36, 41

성경, 59

성신, 78

성전, 24

성찬, 76

세미나리, 60, 62

속죄, 44

순종, 50, 52

신앙, 10, 36, 48

신약, 66

안식일, 42

예수 그리스도, 7, 44, 51, 56, 76, 80

외설물, 12

용서, 44

자녀, 10, 18

잠재력, 54

지도력, 30

친절, 73

회개, 44, 50

희생, 24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가족과 기도

언젠가 제가 아버지의 침대 곁을 밤새 지켰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시절에 부모님께서 보여 주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 생명을 잃어 가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 지상 아버지의 사랑과 친절에 대한 느낌과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느낌을 뒤섞어 말씀하시는 것이 놀랍지 않았습니니다. 아버지는 기도할 때 마음속에 미소 짓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조부모님께서서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 모범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 우리는 아침에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쇠약해져서서 침대에 다시 오르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는 언제나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왜 이처럼 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 보려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절히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용감한 아들들을 필요로 하신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며,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를 들어 올려 주시리라 믿으며, 끝까지 용감하게 분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도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아셨고, 그 점을 결코 잊지 않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자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걸을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68:28)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가 신앙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물론경 및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모든 신권 열쇠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조셉은 그 신앙을 사랑 넘치고 충실한 가족 안에서 얻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20년 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전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통해 이 권고를 가족에게 주셨습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¹

우리는 조셉 스미스를 길러 낸 그의 가족에게 크게 감사해야 하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신앙과 기도뿐만 아니라 회개와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건전한 오락 활동에서도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에게 보인 기도의 모범으로, 여러분 뒤에 올 세대들이 여러분을 축복된 사람이라 일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양육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와 충실함의 모범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길러 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돕고자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비록 평범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면 눈을 뜨고 혹시 누가 그곳에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 싶어지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가족 기도를 하는 가족들에게 가족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대화한다는 것을 그들이 느낄 때, 그들도 신앙이 커져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기도할 때, 가족들이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신앙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통해 몇번이고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만, 가족 기도를 할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에 여전히 축복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범으로 보여 주신, 가족 안에서 하는 기도의 힘은 그 뒤를 이은 후세들을 여전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제 부모님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매일 축복받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신앙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가족 내에 그런 유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가족 선언문 20주년 기념

“가 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1995년 9월 23일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의적절한 원리들을 가르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선언문 20주년을 다음과 같이 기념하도록 권해 본다.

1. 선언문에 담긴 원리 중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열거해 본다.(위의 메시지에서 아이어링 회장이 기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참조한다.)
2. 자신에게 각 원리들이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는지 토론한다.

3. 그런 원리들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기도에 공을 들임

아 이어링 회장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강한 관계를 통해 가족이 축복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더 나은 기도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다음은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아이디어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질문이나 걱정이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그것들을 잊지 않게 적어 둘 수도 있다. 또한 이 시간을 활용해 성신의 온화한 느낌에 집중할 수 있게 그날의 번잡한 마음을 비우도록 한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산만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 본다. 구체적으로 말한다. 또한 기도 끝에 잠시 시간을 두어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의 느낌을 일지에 적을 수도 있다.

기도가 “일종의 일”(Bible Dictionary, “Prayer”)이라 불렸음을 기억하고, 연습이 필요하거나, 힘들다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는 데 노력을 들인다면, 여러 세대를 축복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계속되는 계시”,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73쪽.

어린이

기도 알리기

아 이어링 회장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함으로써 가족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가족에게 매일 함께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카드를 오려 내어 가족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신성한 속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이 방문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신앙, 가족, 구제

경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지니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당도한 것은 나사로가 나을 동안 무덤에 있던 후였다. 그들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고, 예수께서는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왔다]”(요한복음 11:1~45 참조). 구주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사용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힘을 주신다. 그분이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분을 믿는 우리 신앙이 커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속성— 힘차고, 영광으로 가득함

다음은 구주의 신성한 속성을 특징으로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다고]”(교리와 성약 93:17) 가르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 권능으로 우리 구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겻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고통을 참아 내셨다고 말씀했다.¹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이 커지고, 우리가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주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린다 케이 버튼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성약을 지키면 강해지고 힘과 보호를 받습니다. … 저는 최근에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자 … 유혹에 대항하는 힘이 강해졌음을 느꼈다고 간증했습니다.”²

선지자 니파이는 성약의 권능에 대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니파이전서 14:14)

보충 성구

예레미야 51:15; 요한계시록 1:6; 야곱서 4:6~7; 모사이야서 3:17

생각해 볼 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권능과 영광으로 무장할 수 있을까?

주

1. 엠 러셀 벨라드, “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18쪽.
2. 린다 케이 버튼, “성약을 지키으로써 오는 힘과 기쁨, 그리고 사랑”,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11쪽.

2015년 4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5년 4월 연차 대회를 다시 읽으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 살펴보기



결혼을 믿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결혼한 부모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

“제가 로마에서 느꼈던 것처럼,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신념을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영원이자 이상이라는, 대단히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일과 가족,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 현실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굳건한 결혼 관계와 가족 생활의 토대를 건설하고 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엘 톰 페리(1922~2015), 십이사도 정원회, “전 세계 어디에서나 결혼과 가족이 중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41, 42쪽.

결혼 교리에 관한 2015년 4월 연차 대회의 기사를 더 보려면, 보이드 케이 패커, “행복의 계획”, 26쪽과 린다 케이 버튼,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29쪽, 그리고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50쪽을 참고하십시오.

선지자의 약속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크고도 영원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자비의 계획이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안을 마련해 [줍니다.]’ (앨마서 34:15)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디모데전서 2:6),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사람이 오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

“...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기쁘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은사로 내리시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기도합니다.”(로마서 6:4)

디eiter F.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은혜의 은사”,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07, 110쪽.

여러분을 위한 해답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사도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 줍니다. 201년 연차 대회 5월호를 이용하거나 conference.lds.org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만 그것이 주는 힘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데일 지 렌런드,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56쪽 참조.
- 선교사 지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선교사에서 귀환 선교사가 되는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청년 성인 세대”, 67쪽 참조.

- 나는 어떻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래리 엠 김슨, “아버지—우리의 영원한 운명”, 77쪽 참조.
- 필멸의 육신과 지상 생활의 특별한 축복은 무엇인가? 조셉 더블유 시타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라”, 126쪽 참조.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훌륭한 이야기

훌륭한 이야기보다 우리의 이목을 더 잘 끌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사용된 많은 이야기 중 네 개입니다.

-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만 그것이 주는 힘을 내 삶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데일 지 렌런드, “후기 성도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56쪽 참조.
- 애리조나 친리 스테이크의 야지 자매는 자신의 손주가 몇 명인지 왜 알지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답을 옐로헤어 자매가 말해 준다. —캐롤 엠 스티븐스, “주님 가족 주셨네”, 11쪽 참조.
- 1850년에 북부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에서 폭도에 맞서 후기 성도의 신앙을 수호한 청년 마리 매들레인 카든의 이야기가 긴박하고도 용감한 상황을 보여 준다. 이 청년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 — 보니 엘 오스카슨,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14쪽 참조.
- 1991년 시에라리온의 내전 동안 금식 헌금이 어떻게 투레이 가족을 축복했는지 읽어 본다. — 헨리 비 아이어링,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 아니겠느냐?”, 22쪽.
- 최근 신문 기사 표제에 실린 빛을 따르는 용기와 희망에 관한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원히 적용될 것이다. — 엘 휘트니 클레이튼, “믿겠다고 결정하십시오”, 36쪽 참조.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하십시오.

기도: 어머니의 선물

익명

아들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들 중 한 아이가 열일곱 살이 될 때만큼 많이 기도한 적이 없었다. 아들은 복음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어떤 때에는 반항적으로 행동하며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남편과 나는 교회만큼은 가야 한다고 늘 말했지만 아들은 여러 차례 거절했다. 우리는 가정의 밤을 열고, 경전을 읽고, 가족이 함께 기도했지만, 아들은 함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가 계속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 무릎 꿇고 기도드렸다.

그 후 2년 동안 아들에게는 여러가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도와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는 듯싶었다. 결국 아들은 가출하고 말았다.

그런 모든 때에도 나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때로 남편은 지쳐 이렇게 말했다. “내버려 둬시다. 그 애에게도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으니 말이오.” 그러나 내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아니에요. 전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 아들은 집에 돌아왔다. 아들은 용서를 빌며 “엄마, 집에 돌아오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남편과 나는 조심스러웠지만 상의 끝에 아들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아들은 집에 돌아온 후, 변화하려는 굳은 결심을 보였다. 교회에 활동적으로 되기 시작했고,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나중에는 아들에게는 꽤 특별한 경험이었던, 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도 받았다.

어느 날 나는 리아호나에 있던

여러분의 자녀를 도와 주세요

길을 벗어난 자녀는 선택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의 속삭임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은 그런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방법을 알려 준다.

- 배우자 및 다른 자녀와 함께 의논한다.
- 여러분이 두려움이 아닌 신앙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한다.
- 자녀를 도울 방법에 관한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기에 합당하게 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 있는 본보기가 된다.
-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 자녀에게 가정의 복음 교육 활동과, 휴가나 휴일, 또는 목표 달성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부모의 영향력

“성전 성약을 지키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영향력을 크게 미칩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은 가족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울 때, 성신의 영감과 신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성스러운 인도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알고 있기에]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그러한 힘이 자녀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라고]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자녀는 자신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행사하며 신앙으로 응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충실한 부모와 빛나간 자녀들”, *리아호나*, 2014년 3월호, 19쪽.

“걱정이나 의심 때문에 전임 선교 사업을 망설이지 마십시오.”라는 말이 적힌 포스터를 벽에 걸었다. 그 포스터는 아들 방에 두 달 동안 걸려 있었는데, 하루는 문득 아들이 “엄마, 연말에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남편과 나는 울고 또 울었으며, 아들이 성전에 갈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할 때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늘 기도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아들은 선교 사업을 나간 지 얼마 후에 나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엄마, 전 엄마 덕분에 기도에 대한 큰

간증이 있어요. 전 엄마가 그동안 절 위해 기도하신 것을 알아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기에 지금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고마워요, 엄마. 제 인생을 바꾼 이 원리를 자매님들과 나누시길 바라요.”

이제 아들은 충실하게 선교사로 봉사하며, 놀라운 사업에 동참했다. 나는 그동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린다. ■

글쓴이는 과테말라에 산다.

주
1. “다음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6월호, 31쪽.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전장에 뛰어들기를 권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과 관습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부터 급속도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택함받은 자들이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여 주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는 일을 방해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에서 배웠거나, 선교 사업을 하면서 배운 습관, 즉 매일 경전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어린 봉사를 하는 것과 같은 좋은 습관을 더 이상 실천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은 또한 여러분이 오늘날의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쟁에 출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총과 총알의 전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은 실제 전쟁이며, 사상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전세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에베소서 6:11~1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래 전에 힐라맨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오늘 전장에 뛰어들기를 권합니다. 결혼할 때까지나 평생 직업을 갖게 될 때까지, 또는 더 나아가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천 청년 병사들이 “니파이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기로] … 성약하였”(앨마서 53:17)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모사이야서 18:9) 성약을 맺은 현대의 청년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청녀들과 청남들은 현대의 힐라맨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 이제 이 시기에 … 큰 힘이 되었으니”(앨마서 53:19).

외설물에 맞서 싸움

여러분은 외설물과의 싸움에 우리와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외설물은 전 세계로 퍼져 가고 있는 끔찍한 역병입니다.

180년도 더 전에, 주님께서는 담배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 건강의 율법을 제시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에도 흡연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수십 년간의 과학적 연구 끝에 이제 우리는 흡연이 폐암 및 기타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 요인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주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외설물의 영향에 대해 경고해 오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권고에



충실히 따르는 반면에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외설물의 끔찍한 영향을 알아내기까지 180년 또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과학적 연구는 외설물이 청년 성인들에게 여러 모로 심각한 해를 끼치며, 사랑 넘치고 영속적인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해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설물을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 강박 행위가 유발될 수 있으며, 뇌가 재설계 되어, 사람이 중독의 감옥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또한 외설물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부추기며, 건강한 애정 관계에 관한 위협하고 잘못된 교육을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외설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우 은밀하게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또한 신체적으로 경시하고 경멸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외설물의 또 다른 측면은 일반적으로 비밀스런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사용자들은 흔히 연인이나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외설물의 사용을 감추거나 적어도 최소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자랑스럽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것을 가족 및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려는, 자기 은폐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외로움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감, 매우 낮은 자존감 등에 더욱 취약하게 됩니다. 비밀을 간직할 때 신뢰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스스로 외설물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설물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외설물은 진심어린, 다정한 인간관계를 해치는데, 결혼과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이 그 예입니다. 외설물은, 대부분의 치명적인 독이 몸과 마음을 죽이듯이, 그것에 열중하는 사람의 영을 예외없이 파괴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일단 선교 사업에 나가거나 결혼을 하고 나면 이 중독적인 행위를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지금 외설물에 빠져 있다면, 만일 이런 행위에 휩매여 있다면, 지금 영적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주의 도움으로 외설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외설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간청합니다! 외설적 이미지의 어둠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많은 자료들이 LDS.org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려운 때이지만 힐라맨과 그의 젊은 병사들이 가족과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일어섰던 때보다 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서서, 의롭고 헌신적인 다른 젊은 남녀들의 대열에 합류하여 외설물에 맞서 싸울

때입니다.

결혼의 교리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전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결혼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영감에 찬 문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남녀간의 결혼은 그의 영원한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¹

사도들은 망대 위의 파수꾼이 되도록, “원수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원수를”(교리와 성약 101:54) 보도록,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도록 책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결혼의 전통적인 정의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 것입니다. 시민의 평등권이란 관점에 초점을 두고 논쟁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의 입장과 영의 자녀들이 영원무궁한 삶에 필수적인 필멸의 삶을 경험하도록 한 하나님의 목적 및 계획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 왔습니다.

2014년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공표한 성명서를 인용합니다.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도덕 규범은 민법의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결코 변경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선택 사항이나 경향에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옹호하고 지킬 것을 기대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결의 법은 명명백백하다. 성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로서 오로지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담긴 교리를 재검토하고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치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성명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동성 결혼을 장려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할 때 오는 필연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계명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어지는 큰 축복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줄 의무가 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 진리에 대하여 각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또 사회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²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며 그분의 선지자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여러분 중 일부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계시해 주신 계획을 지지한다는 교회의 결정에 내포된 많은 함의와 관련하여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압니다.

저는 또한 일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족 및 결혼을 둘러싼 꼬리를 설명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친절하고, 상냥하며, 사랑을 보일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편협하고 웅졸한 사람이란 꼬리표가 붙을까 봐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성애적인 성향으로 힘들어하거나, 동성애 관계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주님의 영원한 행복의 계획을 옹호하려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하는 것이 내면적인 갈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명확히 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동성애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현실입니다. 동성애적 끌림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동성애 행위를 한다면 죄입니다. 그런 끌림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교회는 [동성애에게 끌리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을 내밅니다.”³

교회는 피하거나 기타 비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과,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돕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증인과 경고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따르는 결과가 어떨지 아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양”이신 구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움과 이해

교회는 외설물과 싸우거나 동성애와 씨름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과 이해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또한 결혼이란 신성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자료와, 온라인으로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교회 회원들을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다음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외설물을 극복함”, overcoming pornography.org.
-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lds.org.
- “The Divine Institution of Marriage”, mormonnewsroom.org.
- “온라인으로 나누는 복음”, lds.org/church/share.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족이 붕괴될 때 개인과 지역 사회와 국가에 고대와 현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재난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⁴

저는 그 경고에 한 목소리로 동참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망대 위의 파수꾼 중 한 명으로서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에스겔 33:1~9 참조) 제가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

주님은 경고하시는 동시에 그분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십니다. 주님의 경고는 또한 그분께로 나아오라는 초대와 함께 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따른 결과가 어떻게 아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요한계시록 13:8)이신 구주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 복음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복음이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십시오.⁵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님은 자비롭고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5, 37~39).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평강이 죄책감을 대체할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와, “그는 [우리]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니파이후서 26:33)는 진리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하기 전이나, 하는 중에나, 하고 난 후에도 구원의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술을 사용하여 삶을 축복함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소셜 미디어 공간을 활용하여 복음을 나누도록, 그리고 현대의 힐라맨 아들과 딸로서 마지막 시대의 위대한 전쟁에 나서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진리를 위해 강하고 단합된 현대의 젊은 병사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진격해 오는 적에 맞서 용감하고 충직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이며, 사탄은 패배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소셜 미디어를 현명하게 사용할 기회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과, 여러분이 배우고 느낀 것에 대한 생각과 간증을 나누는 것이 그 한 가지 예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소셜 미디어 공간을 통해 가족 및 친구들과 복음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귀한 선교사라면 이전 구도자나 신회원들과도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되어 왕국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옹호하면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괴롭힘까지 당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 여러분,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국을 수호함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옹호하면 오해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괴롭힘까지 당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의 염려를 이해합니다.

저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영국 선교부에서 젊은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당시에 물물들은 “조롱거리와 비방거리”(제3니파이 16:9)였으며, 선교사들은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에게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아편아다이처럼 우리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구주처럼 우리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우리의 수고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방부가 14곳 있었고, 스테이크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영국 제도에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46곳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 여러분, 크고 넓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니파이는 그들이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맛본 후 ...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는]”(니파이전서 8:27, 28)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하고 중요한 세대이며, 이 시대는 위대한 시대입니다! 미래는 밝습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해 주신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주님을 돕는 것이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나이를 뛰어넘는 지혜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젊든지 나이 들었든지 함께 힘을 모아 맞서야 한다는 것을 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여행을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하다” 말씀하시며, 구주로, 만군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구속주로 돌아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날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귀중한 존재됨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합니다. ■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2014년 5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서한, 2014년 1월 10일자(미국)와 2014년 3월 6일자(미국 이외 지역).
3. “Love One Another: A Discussion on Same-Sex Attraction,” mormonsandgays.org.
4.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5. 경전 안에서, “복음” 참조.

결혼 생활을 향상함으로써 자녀를 축복함

로리 클러프 셰이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면허 소지자

어느 날 위험한 행동을 한 탓에 목숨이 위태로워졌었던 십대 여자 아이를 치료하던 중이었다. 나는 이전에 그 부모를 치료한 적이 있어서 이 아이가 자신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부모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내 눈을 쳐다보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제 부모님은 서로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응답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야냐고 물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그들은 절대로 싸운 적이 없다고 말했고, 자녀들이 자기들 결혼 생활의 고통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내가 결혼 및 가정 치료사로서 많은 부부에게서 늘 듣던 말이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라고 그 아이가 답했다. 그녀는 가족이 장차 붕괴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프고, 잠을 자거나 학교에 가는 것이 어렵다고 울면서 털어놓았다. “저는 항상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라고 그 아이가 말했다.

그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내게는 이것이 너무나

결혼 생활의 질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과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관계를 향상하고자
노력하면 자녀들이
축복받게 된다.





익숙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부모 모두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그들의 어려운 결혼 생활이 이 아이와 다른 자녀들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이 걱정이 되었다.

가족 선언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때때로 나는 “자녀들을” 돌보는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배우자”를 돌보는 부분이 간과되는 것이 걱정스럽다.

나는 내 직업을 통해 교회 회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기도, 경전 공부 그리고 교회 참석과 같은 긍정적인 종교 관행들을 권장하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도록 장려한다. 하지만 영원한 목적을 위해 청소년을 준비시킬 때 높은 수준의 결혼 생활이 제공하는 가치있는 자원을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

많은 부부들이 가치는 있지만 결혼 생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대의 명분에 너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자녀들의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일정을 조정하지만, 배우자와 데이트할 시간은 내기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경력을 쌓고, 교회 부름을 완수하느라 너무 바빠서 결혼 생활은 쉽게 무시되어, 종종 결혼 생활은 다툼, 분노 그리고 배신으로 점철될 수도 있다.

결혼 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부부가 좀 더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강화하고 운택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로 인한 혜택이 얼마나 멀리 미칠지는 명확해진다.

결혼 생활의 질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는 대부분의 후기 성도 부부들이 자기네 결혼이 성공하길 바라고 있다고 믿으며, 그들이 보여 주는 결혼 생활에 대한 몰입도에 놀란다. 대체로 영원한 결혼 성약(교리와 성약 131:2 참조)을 맺는 후기 성도들은 그 성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결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종종 어마어마한 양의 고통을 감수해 낸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질보다는 안정감만 있는 결혼 생활을 마주하게 된다. 어떤 부부들은 단지 자녀들 앞에서 논쟁만 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이 단절된 결혼 생활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자녀들은 지극히 직관적으로, 대체로 감각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며, 이것은 자녀들이 갖게 되는 깊은 불안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툼이 없는 것은 결혼 생활의 안전한 연결 고리를 짠 값에 대체한 것일 뿐이다. 결혼 생활에서 다툼이 없다고 해서 관계가 강한 것은 아니다.

결혼의 질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질이 높은 결혼 생활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이고 자녀들의 일반적인 복리를 개선시킨다는 사실을 시사한다.² 나는 임상 실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결혼 생활의 질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이 원리는 스펜서 더블유 김블 회장(1895~1985)의 다음 말씀에 잘 반영되어 있다. “결혼은 당장의 행복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은 직접 관련된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특히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내려가 여러 세대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³ 나는 자주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결혼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의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결혼은 영속적이며 소중한 것이라는 개념[의 약화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친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혹은 결혼은 개인적인 성취를 가로막는 족쇄나 사슬이라는 통속적인 관념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젊은이들은 결혼을 회피합니다. 충분한 결심 없이 결혼한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중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을 때 달아날 자세부터 취합니다.”⁴

결혼 임상의로서 나는, 부모가 이혼했거나 질이 좋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던 성인들은 성공적인 장기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자주 보고되고 있음을 단언할 수 있다. 그들은 자주 결혼 생활에서의 의견 차이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다툼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애를 쓰는데, 이런 것들은 때때로 결혼 생활의 친밀함을 제한할 수 있다. 친부모의 결혼 생활이 기울어지고 파경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경험했던 정신적인 고통을 떠올리면서 우는 성인들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결혼 생활의 질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는 결혼에 대한 자신감이 약화된다.

결혼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선택함

결혼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선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는 최상의 특성을 지닌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보다 못한 형태의 지속되지 못할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⁵

유명한 결혼 임상의이며 학자인 윌리엄 제이 도허티는 의도적으로 함께 헌신하는 것, 혹은 결혼 관계를 향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 확고부동한 결심을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토양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결혼 관계는 서서히 침식되어 결국 파경에 이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 목적 없는 결심은 안정된 결혼 생활을 가져다주지만 진부한 결혼 생활로 이끈다.”⁶ 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에 깊은 결심과 안정을 표하지만, 적극적으로 결혼에 득이 되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는다. 결혼 생활에 있어 값진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실망스럽다.

배우자를 사랑하기

본부 청년 회장을 역임한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가 말씀했을 때 아버지가 딸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딸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⁷ 그 말씀은 내 마음을 관통하는 듯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말해 주고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맞혀 보렴.” 이라고 물으면 아이들 중 한 명이 “전 아빠가 엄마를 ...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또는 “전 엄마가 아빠의 ... 제일 좋은 친구라는 걸 알아요.” 또는 “전 엄마가 아빠가 ... 꿈에 그리던 여자라는 것을 알아요.” 하던 여러 순간들이 떠올랐다. 또는 수년 동안 그가 강조하듯 이와 비슷한 선언들을 했던 여러 순간들을 생각했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느꼈던 한없는 안정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남편이 나에게 대한 사랑, 존경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표현한 직접적인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튼 자매의 중요한 가르침은 물론경에 나온 선지자 야곱의 가르침으로 뒷받침된다. 그가 니파이인들의 악함을 꾸짖을 때,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레이맨인들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며,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는 그 자녀를 사랑하니”(야곱서 3:7)라고 지적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회에서 방송하는 비영리 공익 광고 시리즈인 *Homefront*에는 “시간제”라고 불리는 유명한 텔레비전 코너가



결혼의 잠재력

“결혼은 다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더 큰 행복의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부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로맨스가 녹이 슬도록 방치하고, 서로를 당연시 여기며, 다른 관심사나 무관심의 구름이 결혼 생활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을 흐리게 하도록 내버려둡니다. 좀 더 조심해서 보살피면 결혼 생활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결혼 생활을 보살피”,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36쪽.

있는데, 여기서 한 어린 소년이 일하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 “[만일] 아빠가 일하지 않으면 아빠는 돈을 받지 못해요.” 이에 어머니가 이렇게 덧붙인다. “사람들이 아빠가 일을 무척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 대해 돈을 지불한다.”⁸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광고 중의 하나인데, 왜냐하면 어머니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끼어 들어 아이 편을 들면서 소극적인 부모를 질책하는, 일반적이고 비효과적인 관행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으로 다른 쪽 부모는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그 결과로 자녀는 불안정감을 갖게 된다. 긍정적이고 전략적인 말을 함으로써, 광고에 나온 어머니는 아버지와 자녀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더 많은 부모들이 좀 더 이와 같이 자신의 대화를 고친다면 전반적인 부부 및 가족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 확신한다.

결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언

결혼 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은 작은 변화로 즉각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 하는 작은 변화로 즉각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앞으로 5년, 10년, 또는 20년 후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나눈다. 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종류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부부의 숫자에 항상 놀란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결혼 생활을 중심 무대에 놓게 해 주고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의 향상과 미래를 위한 결심을 하도록 돕는다.

결혼 생활에서 긍정적인 기억들을 적고 나눈다. 부정적인 감정은 잠식하는 힘이 커서 종종 희망을 몰아내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이 긍정적인 기억들을 생각하고 나눌 때 희망에

대한 감정을 다시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순간의 기억을 나눈다. 그러한 여건을 회상해 보는 것은 결혼한 부부로 단합을 이루는 한 방법이 된다.

여러분이 헤어졌다 다시 만났을 때를 기념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관행을 만든다.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부부들은 종종 결혼 생활에서 오랜 시간 차곡차곡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키스, 포옹 또는 말로 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있다.

데이트에 새롭고 흥미로운 것을 도입한다.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서 데이트를 하는 부부 관계의 질은 향상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창조성과 노력이 필요하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우자에 대해 존경하는 점을 말한다. 이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다. 내가 치료하고 있는 부부들에게 이 지시를 따르도록 했을 때 그들은 즉시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다.

결혼 생활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행복감을 주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여기에는 책과 기사(인쇄물이거나 오디오), 게임, 강연, 노변의 모임, 워크숍, 연차 대회 등이 있다.

부부로서 이전보다 더, 혹은 덜 결합되었는지를 서로 정기적으로 물어보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의논한다. 이것은 매일, 매주 또는 매월 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결혼 생활에 다시 주의를 돌리게 해 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감독과 상담한다. 여러 이유로 사람들은 종종 도움 구하기를 미룬다. 나는 부부가 분노로 결혼 생활을 망치기 전에 몇 년만 일찍 도움을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 적이 수도 없이 많다.

기도한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배우자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점과 실수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해 주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배우자의 짐을 가볍게 해 주고 배우자의 슬픔을 덜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⁹ 이러한 것들이 너무 어렵게 여겨진다면 배우자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길 원하도록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1907~1995)은 이렇게 선언했다.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는 것은 무엇이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부부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들은 곧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가족에게 손을 얹으시면, 가족은 생명을 받게

됩니다.”¹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장 질이 높은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 그러한 관계를 향상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행복한 결혼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지대한 축복을 가져다준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E. Mark Cummings and Patrick T. Davies,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 An Emotional Security Perspective* (2010) 참조.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2006), 193쪽.
4. 맬린 에이치 옥스, “이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70쪽.
5. 러셀 엠 넬슨, “해의 왕국의 결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92쪽.
6. William J. Doherty, *Take Back Your Marriage: Sticking Together in a World That Pulls Us Apart*, 2nd ed. (2013), 8, 9.
7. 일레인 에스 돌턴, “딸의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7쪽.
8. “By the Hour” (video), *Homefront* TV spots, lds.org/media-library/video/homefronts 참조.
9. 헨리 비 아이어링, “완전한 모범”,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71쪽.
10. 하워드 더블유 헌터, “경전 읽기”,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96쪽.



브루스 시 하펜 장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칠십인으로 봉사함

성전^과 결혼^의

자연 질서



이 기사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켄 장로가 작성한 두 기사 중 두 번째 기사이다. 첫 번째 기사는 리아호나 2015년 8월호에 게재되었다.

혼란스러운 문화 때문에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질 때, 우리는 자신과 서로에 대해 너무나도 빨리 단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성전의 영원성은 우리가 현대의 혼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우리는 의식들을 통해 결혼의 자연 질서를 포함한 우주의 자연 질서로 다시금 방향을 잡게 됩니다. 고대 뱃사람처럼 우리는 방향을 잡기 위해 하늘을 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후기 성도 학자인 휴 니블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전은 우주의 조직 원리를 나타내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성전은 필멸의 존재가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우는 학교입니다. ...

“... 지상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으며, ... 그 둘레를 하늘의 모든 운행들이 돌며, 하늘과 땅을 함께 묶는 매듭입니다.”¹

따라서, 성전은 우리 마음에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고유 율법을 새길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결혼

우리는 우선 성전의 태초 이야기이기도 한,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야기에서 결혼에 대한 성전 가르침을 배웁니다. 언젠가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복음과 성전의 중심에 계시다면, 왜 성전 엔다우먼트는 그리스도 생애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지? 도대체 아담과 이브에 대한 이 모든 것은 뭐지?”

저는 그리스도의 생애란 속죄를 주시는 이야기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때로 필멸의 무시무시한 반대 속에서도 속죄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 아기가 태어날 때 느끼는 사랑을, 자녀를 키우며 영혼의 전력을 기울이는 희생, 자녀들이 선택 의지를 어리석게 사용하는 것을 지켜보는 괴로움을 알게 된 첫 번째 부모였습니다.

아버지 리하이는 우리에게 그들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을 이해할 교리적인 배경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지 않았다면 어떠했을지 말해 줍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라 ...

또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하매 기쁨이 없고,

성전은 하늘과 땅을 함께 묶는 매듭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에서 결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 주는 두 가지 함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회복에서 가르치는 타락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현명한 선택을 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오직 필멸의 삶만이 그들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브의 선택이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도록 한 비극적인 실수라고 가르칩니다. 일부 기독교 교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어리석은 이브의 딸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에 강력히 반대하며 아내가 남편에게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정을 기하고자 남편도 아내에게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양쪽 배우자가 서로에게 독립적일 때, 그들은 오늘날의 “구속력이 없는 언약”을 받아들인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결혼 생활을 떠납니다.

의존 또는 독립, 어떤 쪽이 옳을까요? 어느 쪽도 옳지 않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나머지 기독교와는 달리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한 선택이 실수나 사고가 아니라, 구원의 계획에서 신중한, 심지어 영광스러운 부분이었음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회복은 이브와 모든 여인을 남자와 완전히 동등한 고귀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브는 아담에게 종속되지도 않았고, 그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브와 아담은 서로에게 상호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서로를 돕”는 “동등한 동반자”였습니다.²

상한 심령을 제단으로 가져감

둘째,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 한 천사가 나타나 아담에게 왜 희생 제물을 드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하기를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아담과 이브는 하는 모든 일에서 서로를 돕는 상호 의존적이고, 동등한 동반자였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였으리라.” ...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나.”(니파이후서 2:22~23, 25)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죄와 고통, 그리고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해진 과정인, 기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기 위한 배경을 생성합니다.

속죄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고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듯이, 속죄를 받는다 함은 단순히 검은 얼룩을 지우는 것에 관한 교리가 아니라, 인간이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교리를 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지 그들을 천진한 세계인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아무런 줄거리도, 주인공의 성장 과정도 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에덴 동산을 떠나 함께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성전의 태초 이야기는 필멸의 삶 동안 계속되는 반대에 맞서도록 서로를 돕는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를 다분히 담고 있습니다. 때로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반대에 맞서야만 참된 기쁨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모세서 5:6~7)

따라서 아담과 이브가 희생했던 동물은 아버지께서 미래에 아들을 속죄 제물로 희생하실 것을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후 천사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의 계획이 상반되는 모든 것, 참으로 그들의 필멸의 삶에서의 모든 경험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것임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아담과 이브가 희생물을 바쳤던 것처럼,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성전에 갈 것을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성전에 갑니다. 단순한 순종이 의식을 전혀 행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낫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보내신 주님께서는 왜 그래야 하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저는 그분께서 우리도 왜 그래야 하는지 알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성전 의식도 또한 "독생자의 ... 모형"입니까? 아담과 이브의 제단처럼, 성전 제단이 어떻게 기도와 희생, 성약의 제단이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엔다우먼트의 모든 성약 안에 들어 있는 희생의 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 사명을 마치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희생 동물을 제물로 바치지 않지만, 그 대신 다른 방법으로 희생을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제3니파이 9:20; 또는 니파이후서 2:7 참조).

동물 희생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희생하시는 것을 상징하지만,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은 아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습니다."³ 그와 같이 우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다시 말해 개인적인 희생물로 상한 마음을 바칩니다.⁴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개인적인 희생은 결코 짐승을 제단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재한 동물적인 본성을 제단 위에 놓고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⁵

최근에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며, 한 젊은 부부를 인봉했습니다. 그들이 제단으로 나아가고,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그들이 이 의식을 통해, 제단 위에 그들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바치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말해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듯이, 서로와 하나님께 스스로를 사심없이 바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서로에 대한 평생에 걸친 희생을 통해, 다시 말해,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자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더욱더 그분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 각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게 되며, 또한 서로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인봉 의식의 성약대로 산다면 그들 결혼이 성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자체가 또한 성결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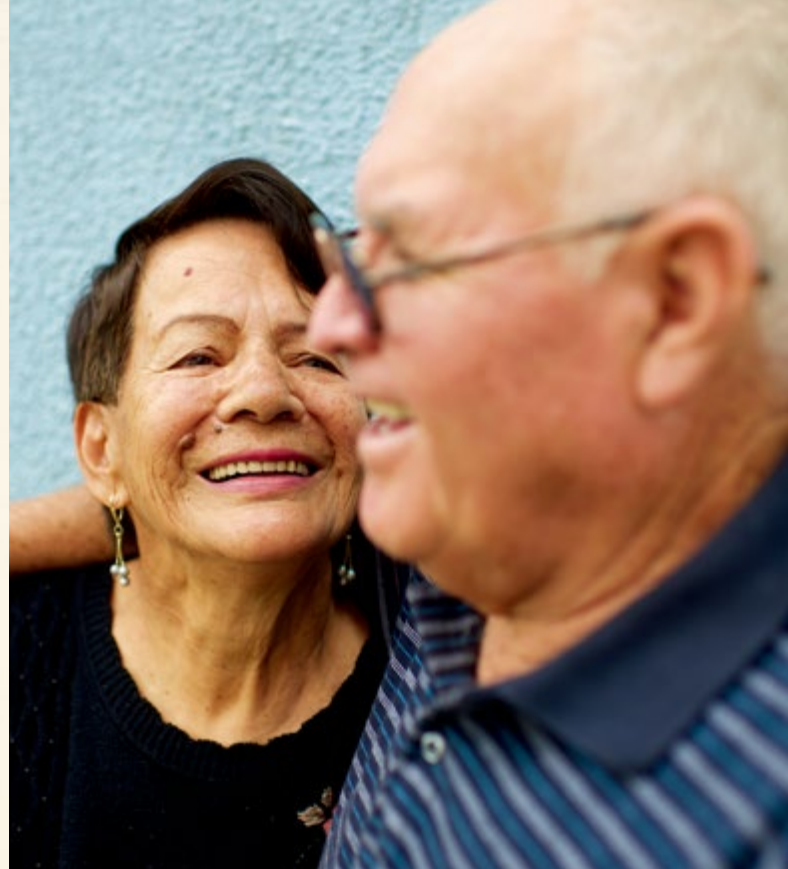
결혼에 대한 이 이해는 오늘날 만연하는 결혼관과는 아주 확연하게 다릅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양을 돌보고 품삯을 받는 삯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리가 올 때 삯꾼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삯꾼은 왜 달아날까요? 왜냐하면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한복음 10:11~15참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두 삯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삯꾼은 ‘곤경’이라는 늑대에게 위협을 느낄 때 달아나고 맙니다. 부부가 삯꾼에 불과하다면, 생명은 고사하고 안락함이나 편의를 내놓으며 상대방을 지키기 위해 굳이 위협을 무릅쓰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선한 목자를 본받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결혼의 제단에 바칠 때, 우리는 성약의 양을 위해 종일토록 또는 한 번에 한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내놓기로 약속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제한적인 방법으로, 구주께서 우리의 고난을 지신 모범을 따라 동반자와 자녀들의 고난과 기쁨을 이타적으로 지기로 성약을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피터 휘트머에게 그의 선교 동반자인 올리버 카우드리에 대해 “그의 모든 고난 중에 너도 고난을 겪으며”(교리와 성약 30: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구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며 바로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셨도다]”(이사야 63: 9; 또한 교리와 성약 133:53 참조).

아내가 여러 해에 걸쳐 쇠약해지는 질병을 겪은 후에 세상을 떠난 한 성전 봉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축복받은 50년을 함께 살아왔기에 저는 사랑이 뭔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아내를 돌보려고 노력하면서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 사람은 삯꾼이라든 결코 깨닫지 못할, 즉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동정심의 깊은 샘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발견들의 축적으로 주님처럼 살고 죽음으로써, 선한 목자와 같이 되는, 성결하게 되는 과정을 밟아 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그와 같은 삶은 우리 문화의 사회적 관심에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결혼과 진정한 기쁨

최근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성전 인봉의 승영 약속을 받으려면 얼마나 완전하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남편과 아내는, 특히 영원한 축복을 구하는 부부는, 서로를 잘 알기에 때로 자신들이 충분히 완전하게 살고 있는지, 혹은 자신의 배우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로나이가 나눴던 작별 인사 속에 나오는 대답을 좋아합니다.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모로나이사서 10:32; 강조체 추가) 우리 자신에게서 경건하지 아니함을 뿌리 뽑는 한 가지 방법은 성전 가까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교리와 성약 84:20, 강조체 추가)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함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개인 역량의 한도에 이르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완전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을 버리고,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완결지를 것입니다. 1902년에 작성된 제일회장단 서한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희생을 모두 합친다면 어떻게 될지 제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온전한 상태에 이르면 그들을 남편과 아내로 하나로 묶었던 성약을 포함한, [의]와 조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외에 다른 어떤 소망도 갖지 않을 것입니다. … 첫 번째 또는 해의 왕국의 부활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몸 또한 완전해야 합니다. …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처럼 아름다울 것이며, … 그때에 육신의 약점들은 극복되고 잊혀질 것이며, 남자와 여자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⁶

제가 아는 한 여성이 50년 전에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여러 자녀를 둔 후에, 남편의 파란만장한 삶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었고, 그는 교회에서 파문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교회 회원 자격을 포기하고 가시밭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그녀의 전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딸이 어머니가 성전에 돌아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그녀를 데리고 제 사무실로 찾아와서, 저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정죄됨 없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 평온한 대화를 나눈 후에 우리는 회개와 재침례, 성전 축복의 회복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후 저는 그녀에게 회복 의식을 받으면 그녀의 성전 인봉 또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요?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제 아들도 조울증입니다. 우리는 그 장애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움이 되는 약을 복용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 아버지도 조울증을 앓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우리 가족의 삶에 일어난 많은 힘겨웠던 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빠를 판단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일 언젠가 정말로 성전에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인봉이 회복되게 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떠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성전과 엘리야의 인봉 권능이 자녀와 부모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릴 뿐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서로에게로 돌리게 하는 화해의 원천임을 깨달았습니다. 후에 저는 어머니가 재침례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결혼의 질서가 우리 삶에서 그 질서를 찾고, 세우고, 지키는 등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든 간에 가치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또한 선한 목자처럼 살고자 노력하는 남편과 아내는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찬, 더욱더 풍성한 삶을 발견할 것이며, 서로에게 그런 삶을 주게 될 것임을 증거합니다. ■

2014년 1월 31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제이 르우벤 클라 법률 협회 연례 노년의 모임에서 “결혼, 가족법, 그리고 성전”이란 제목으로 하신 말씀에서,

주

1. 휴 니블리, *Eloquent Witness: Nibley on Himself, Others, and the Temple, in The Collected Works of Hugh Nibley*, 19 vols. (2008), 17:312, 313; see also *Encyclopedia of Mormonism*, 5 vols. (1992), “성전의 의미와 기능”, 4:1458-59.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제3판, 1916년, 669쪽.
4. “그 곳에 무수히 많은 의인의 영의 무리가 한 곳에 모였는데, 그들은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하나님 아들의 크신 희생의 본을 따라 희생을 드린 자들이요, 또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으로 환난을 겪은 자들이더라.”(교리와 성약 138:12-13)
5. 닐 에이 맥스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67쪽; 강조체 추가
6. 조셉 에프 스미스, 존 알 윈더, 앤톤 에이치 런던가 크리스틴 에글스톤에게 보낸 서한, 1902년 1월 28일, 후기 성도 교회 역사 도서관.

성전의 영원성은 우리가 현대의 혼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페르 지 맘 장로
칠십인 정원회

교회 지침서

— 명문화된 질서

우리가 지침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공통의 지혜를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분] 안에서 충만하여” 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 교 사업을 마치고, 저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의 가장으로서 저의 회사를 경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실하고 성숙한 회원들이 많은, 꽤 큰 지부의 지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거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문제들을 함께 의논할 훌륭한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좌들의 도움이 충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기]”(교리와 성약 107:99)를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 두” (교리와 성약 84:85)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가 성신의 영감을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성신은 모든 회원에게 주어지고 지속적인 인도와 계시를 약속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가 받았던 그 부름과 다른 부름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성신과 경전 이외에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교회 지침서라고 느낍니다! 지침서는 제가 처음 배울 때에는 안내서로, 그리고 지금까지 귀중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보화와 같은 정보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 지침서가 필요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지침서가 경전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가장 최근의 해석과 교회의 가장 높은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방향을 보여 줍니다.”¹ 또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도자들은 “원숙해지며

제가 받았던 지부 회장의 부름을 다시 생각해 보니, 성신과 경전 이외에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교회 지침서라고 느낍니다!



지침서 안에 있는 안전

“여러분이 오래된 교회 회원이든 비교적 새로운 회원이든 간에, 정책이나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침서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은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 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침서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개회 말씀”, 2010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경험을 쌓고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

따라서, 교회 지침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시험하고 입증한 경험에서 얻은 공통의 지혜를 보여 줍니다. 그 지혜는 앞으로 우리가 교회의 임무를 수행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109:7). 분명히, 지침서에 나와 있는 지혜는 지침서를 “가장 좋은 책”으로 만듭니다.

지침서는 우리가 방침과 절차와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침서가 없다면 “교회는 통일된 정책과 절차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회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지도자들이 선한 의도에서 교회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을 바로잡고 시정해야 했습니다.”

몬슨 회장은 지도자가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제일회장단은 조치를 승인하거나 그 일을 다시 집행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침서를 무시하면, 우리는 제일회장단의 의무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도자들이 지침서를 읽고, 이해하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 지침서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³

몬슨 회장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 부름을 수행하고 있든 간에, 지침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봉사하고,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침서에는 우리가 의무를 배우고 행하여(교리와 성약 107:99 참조), 미래 지도자가 될 준비를 하도록 돕는 많은 정보와 인도가 들어 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지침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에 관해 가르칩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준비를 하도록 도와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구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조직과 방법을 제공한다”고 지침서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신권 권세를 제공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관리를 위한 교리적 기초가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의 처음 세 장에 나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족과 교회
2. 신권 원리
3.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지도력

우리는 이 세 장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 세 장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과 승영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직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⁵ 그분의 이런 사업은 교회에서의 활동과 기회, 그리고 봉사 활동과 축복 및 개인적인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모든 것은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고 강화하도록 신성하게 재정된 책임에 역점을 둡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집합시키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의 구원이 가능하게 하는 일이 포함[됩니다].”⁶

우리가 이 교리적 기초를 이해할 때, 교회에서 받는 모든 부름의 목적과 역할이 다음과 같이 분명해집니다.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와 교사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은 개인과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⁷

지침서의 교리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다음과 같은 구주의 훈계에서처럼 경전에 기반을 둡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

계시를 받게 해 주는 지침서

어떤 저활동 회원의 감독은 그 회원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돕던 중,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에 나와 있는 교회 선도 부분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테이크 회장단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감독은 선도 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침서의 교리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다음과 같은 구주의 훈계에서처럼 경전에 기반을 둡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감독단과 만나서 올바른 절차를 다시 기억하고 그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침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회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를 돕는 주님의 영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나중에, 감독단이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 후에, 보좌 중 한 명이 지침서 제1권의 그 상황에 맞는 부분들을 소리 내어 다시 읽어 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감독은 보좌들에게 제안할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1보좌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감독님,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제2보좌도 그것을 똑같이 느꼈고, 감독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서로에게 지침서를 읽어 주니,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었습니다.” 감독은 그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침서의 원리들이 이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분명해졌고, 우리 모두 똑같은 응답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침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공통의 지혜를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골로새서 2:10)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데 필요한 도움을 줄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감독단이 경험했던 것처럼, 교회 지침서에 나오는 지침은 “영의 인도를 구하는 가운데 적용할 원리,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그러한 지침들을 활용할 경우, 그 지침들은 계시를 더 잘 받게 해 줄 수 있습니다.”⁸

지침서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돕는다

지침서를 읽고, 이해하고, 따를 때, 이것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⁹ 하나의 예로, 지침서 제2권에 나와 있는 정책 변경 부분을 통해 감독이 어떤 아버지를

축복하고 강화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열두 살 난 자신의 아들을 아론 신권에 성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20장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성전에 가기에 완전히 합당하지 않은 신권 소유자가 일부 의식과 축복을 집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침례와 아론 신권 성임도 그 의식에 포함됩니다.¹⁰ 그 아버지는 성전 추천서 없이는 아들을 성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영의 인도에 따라”¹¹ 접견 후, 성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현재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 아버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성전에서 아내와 인봉되어 아이들이 그들에게 인봉되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적절한 선 안에서의 유연성과 여건에 따른 조정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원리와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면 “성신의 영향력이 지도자들과 회원들의 삶에 미치게 됩니다.”¹² 하지만 세계적으로 교회 회원들은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갖고 있고, 몇몇 지부와 와드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회원 및 지도자와 자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보안과

교통과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 경제 상황 같은 문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침서 제2권의 17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와 “현지에서 조정이 가능한 상황”에 따른 조정의 예로는 보조 조직에서 봉사할 사람 배치와 보조 조직 프로그램과 지도자 모임과 활동의 형식과 빈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반드시 지도자들이 영의 인도를 구한 후에만 이루어져야 합니다.¹³

이렇게 할 때, “모든 와드와 지부는 규모와 상황에 상관 없이 주님의 영을 똑같이 풍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¹⁴

명문화된 질서

지침서는 우리에게 “명문화된 질서”라는 것을 줍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에게 주어지는 *지침서 제1권*에는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의 일반적인 책임”에 대해 요약되어 있고, “정책과 절차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성전과 결혼, 복지를 위한 선교 사업과 교회 선도 및 재정 관련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¹⁵

모든 교회 지도자에게 주어지는(LDS.org에서도 볼 수 있는) *지침서 제2권*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연성과 지역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교회 프로그램의 복잡함을 줄입니다. 지침서는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 구성원[과 교회와 구원 사업을 관리하는 각 보조 조직]을 위한 안내서”¹⁶입니다.

지침서에 있는 공통의 지혜는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또한 구주의 교회의 모든 와드와 스테이크에 있어야 하는 참된 봉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지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지침서를 공부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며, 그 원리를 마음속에 새겨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빛과 이해력,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 봉사하는 최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속적인 축복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와 관련하여, 제일회장단의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손과 마음을 내밀면 우리에게도 아주 훌륭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이 치유되고 더 깨끗해지며, 강해집니다. 더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며, 성령의 속삭임에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됩니다.”¹⁷

지침서는 우리가 모든 것의 완전한 그림을 보도록 돕는다

201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정원회의 라파엘 이 피노 장로는 자녀 중 한 아이가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왜

화를 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피노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각각의 작은 조각들이 완성된 그림에서 맞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퍼즐 놀이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¹⁸

우리가 교회의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하든, 지침서는 우리에게 퍼즐 맞추기 상자에 있는 그림과 같은 완성된 그림을 보게 해 줍니다. 그 그림은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께서 그분을 위한 봉사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더 잘 이해하도록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지침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공통의 지혜를 따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골로새서 2:10)

나중에 형식과 내용 부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지침서는 계속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 회원과 지도자를 축복하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택하도록 돕는 데에 지침서를 사용한다면, 이 책은 여러분에게 보화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이 만들어진 목적입니다.”¹⁹ ■

주

1. 델린 에이치 옥스, “새로운 지침서 소개”, 2010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10년, <https://www.lds.org/broadcasts/article/worldwide-leadership-training/2010/11/overview-of-the-new-handbooks?lang=kor&query=overview+of+the+New+Handbooks>.
2. 러셀 엠 펠스, “선지자를 지지하며”, 엔자인 또는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75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개회 말씀”, 2010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4.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1.5.
5. *지침서 제2권*, 2.2.
6. *지침서 제2권*, 2.2
7. *지침서 제2권*, 1.2.2, 1.4.
8.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 v쪽; 지침서 제2권, v쪽*; 강조 추가.
9. 토마스 에스 몬슨, “개회 말씀”, 2010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10. *지침서 제2권*, 20.1.2.
11. *지침서 제2권*, 20.1.2.
12. 쿠엔틴 엘 쿡, “새 지침서에서 선별한 몇 가지 원리들”, 2010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13. *지침서 제2권*, 17.1, 17.2. 참조
14. *지침서 제2권*, 17.
15. *지침서 제1권, v쪽*.
16. *지침서 제2권, v쪽*.
17.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Ensign* 또는 리야호나, 2010년 5월호, 75쪽.
18. 라파엘 이 피노, “복음의 영원한 관점”, *Ensign* 또는 리야호나, 2015년 5월호, 117-118쪽 참조.
19. 헨리 비 아이어링, “제일회장단 메시지: 지침서와 계시와 보화”, 2011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2011년), www.lds.org/broadcasts/article/print/worldwide-leadership-training/2011/02/first-presidency-message-handbooks-revelations-and-treasures?lang=eng.

후기 성도들은 시에라리온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노먼 시 힐

가나 아크라 서선교부(2013~현재) 및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2014~2015) 회장

여러분의 나라가 내전에서 회복되는 중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립되었다면, 여러분의 나라에서 교회는 어떻게 존속하겠는가? 현지 출신 선교사를 제외하곤 선교사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되풀이해 철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서아프리카 국가인 시에라리온에 거주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의지하는 가운데 교회가 번창하고 있음을 목격할 것이다. 또 현지 지도자들이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 회원들이 서로를 강화하고, 선교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신앙이 두려움을 이기고 있음을 볼 것이다.

꾸준한 성장

시에라리온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의 내전에도 불구하고 교회 회원 수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이 나라에 전임 선교사가 처음 도착한 것은 1988년 5월이었다. 2년 후에는 지방부가 창설되었다. 1990년대에는 전쟁 탓으로 선교사들이 여러 차례 철수했지만, 현지 회원들은 계속 교회를 운영하여 성장시켰다. 2007년에는 라이베리아를 포함하는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선교부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나서 2012년 12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가 시에라리온의 수도인 프리타운에 스테이크를 조직했는데, 이 스테이크는 교회의 3,000번째 스테이크였다.

에볼라와 싸우며

그러다가 에볼라가 왔다. 이 출혈열은 2014년 3월 기니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다. 이 바이러스는 5월에 시에라리온에 들어와 급속히 퍼져 나갔다. 전임 선교사들은 재배치되고, 가나에 주재하는 선교부 회장은 아크라에 머무르면서 시에라리온 선교부 회장으로도 봉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케네마 지방부 회장인 조나단 코비나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들이 떠난 뒤, 남겨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에 아프리카 서 지역 회장단에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서신을 받았습시다.” 그 이후로 시에라리온에 사는 13,000명의 회원은 지역 차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국제적인 조직들이 구호를 베풀 준비를 하자 교회 복지 서비스 및 긴급 대응 부서는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자 여러 국제적인 조직의 실무 파트너들과 함께 일했다.(별도의 난 참조)

코비나 회장은 말했다. “며칠이 채 안 되어 우리는 새로 임명된 선교부 회장님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모임과 활동을 할 때에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다른 일은 전에 한 것처럼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에라리온 대통령은 2014년 9월, 질병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과 며칠 내로 시작될 전국적인 통행금지를 발령했다. 이 통행금지 기간에는 모든 시민이 실내에 머물러야 했으며, 대다수 국민은 무엇이든 집안에 있는 식품으로 지내야 했다.

질병과 고립, 그리고 오랜 전쟁의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 국가의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안다.



후기 성도들은 복음을 공부하고 나누며, 에볼라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가정에서 모임을 하는 가운데 충실함을 유지하고 있다. 오른쪽: 플라스틱 통으로 제공된 청소용품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함께 일하며

교회는 회원들에게 때맞추어 도움을 주는 일 외에도 후기 성도가 없는 여러 지역에서 에볼라와 싸우기 위해 손을 뻗고 있다. 교회는 산하 인도주의적 조직을 통해 다양한 단체와 제휴하여 일곱 개 지역 프로젝트를

통해 구호를 베풀고 있다. 에볼라에 심한 타격을 입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에 있는 지역 사회들은 이런 협력 덕분에 식품, 침구, 위생용품 및 지침, 의료 및 보건용품, 에볼라 관련 근로자용 보호복 등을 받았다.

때맞추어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카 서 지역은 통행금지가 발령되기 불과 몇 주 전에 교회 본부와 협력하여 시에라리온의 후기 성도 7,800 가정에 청소용품 전달을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 50kg들이 쌀가마와 몇 리터의 식용유를 2,500여 후기 성도 가정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임박한 통행금지를 알지 못한 채 이런 보급품을 전달하고자 동분서주했다.

선교부 회장 특별 보조인 사르 도이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당시 저희가 느낀 긴박감은 설명하기 힘듭니다. 보급품 전달을 승인받은 주말에 어떤 특별한 지역은 격리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보급품 전달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저희는 트럭에 짐을 실어 나라 전역에 있는 지부에 보내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접근 제한이 발표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물품이 도착했죠. 저희는 통행금지 직전에 가까스로 보급품을 온 나라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축복이자 현대의 기적이었어요.”

에볼라 발생은 또한 광범위한 실업 사태를 초래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작은 물건들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앨런타운 지부의 사이 카말라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거의 희망이 없었어요. 가진 돈은 통행금지가 있기도 전인 9월에 동났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의 보급품을 받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키씨 2지부의 메리 마르케이 자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과부이자 가장인 저는 교회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어서 기분이 무척 좋아요. 저희는 통행금지 기간에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몰랐는데 먹을 음식이 있는 집에 머무를 수 있어서 기쁘기

한량없었죠.”

어느 곳의 교회 회원들처럼 시에라리온 성도들은 자립하고자 힘쓴다. 그렇더라도 이런 예상치 못했던 궁핍한 시기에 보급품은 의지할 곳 없는 많은 사람에게 때맞추어 도착했다. 이 나라의 홍보 위원장인 마리아투 브라우니는 말했다. “이런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이곳 성도들은 자기가 홀로 버려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죠.” 후기 성도들은 격리 기간에도 자기 물품을 이웃에게 나눠 주어, 도움이 없었더라면 거의 가진 것이 없었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주님의 손안에서

유감스럽게도, 걱정거리는 굶주림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일부 후기 성도는 질병에 걸렸다. 교회 회원이 된 지 일 년밖에 안 된 테코로드 지부의 사이먼 카마라는 아내와 아들이 에볼라로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다가 자신도 감염되었다.

“제 삶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는 치료소에 있는 동안 이렇게 말했다. “어느 아버지들처럼 저도 제 아이들이 잘되길 바라죠. 이제는 복음을 찾았고 구원의 계획을 알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 자신과 가족에 대한 큰 희망이 있어요.” 카마라 형제는 처음에 회복의 징후가 보였지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생존한 그의 아이들은 이제 회원들과 친구들의 보살핌 속에 잘 지내고는 있지만, 부모를 몹시 그리워한다.

개인적인 기적

워털루 지부의 하주 줄로 자매는 간호사이다. 병자를 돌보는 동안 그녀는 날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었다. 환자가



왼쪽: 의지할 곳이 없는 많은 사람을 위해 쌀, 식용유, 청소용품이 때맞추어 도착했다. 후기 성도들은 격리 기간에도 자기 물품을 이웃에게 나눠 주어, 도움이 없었더라면 거의 가진 것이 없었을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위: 너이자 타운 지부에서의 침례

늘어나자 일하는 병원에 있는 보호용 가운이 철저히 세탁되지 않아 청결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 줄로 자매는 2014년 8월, 교회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어 에볼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 집안에 격리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교회에 참석할 수 없자 지부 회원들이 제게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더군요. 저는 방안에 갇혀 있으면서 물문경 공부에 집중하기로 마음 먹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영적 체험에 관한 내용을 읽었죠. 저는 기적을 바랐지만,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읽기를 계속하며 읽은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화로 이야기했죠. 몇 주 동안 집에 있다가 바이러스 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다시 음성으로 돌아오더군요. 한 주 더 격리되어 있다가 재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이번에도 음성이었죠. 그래서 집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교회에 참석하고 아울러 직장으로 복귀했어요. 제게는 기적이 아닐 수 없었죠.”

구원 사업을 서두름

긴장이 심한 시기에 선교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는가? 시에라리온 성도들에게는 전통이 있다. 그들은 상황이 어떻든 계속 복음을 나눈다.

코소타운 지방부 바이 씨시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처지를 한탄하거나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전임 선교사를 대체할 지부 선교사들을 부름으로써 성도들의 결집을 유도했죠. 우리에게는 신세를 한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구원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귀환 선교사들과 장래의 선교사들을 짝지어 지역(zone)을 조직했습니다.”

또 다른 선교부 회장 특별 보조인 브라이언 로빈-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지부 선교 책임자에게는 전도 목적으로 전화 카드를 소지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카드 사용에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것은 지부 선교사들이 새로운 구도자나 최근의 개종자와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더러 그들과 계속 접촉하자 큰 차이가 생기더군요.

우리에게는 구도자나 새로운 개종자와 하는 ‘전화 공과’가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이 공과는 교회에서 하는 주례 선교사 공과를 보충해 줍니다. 우리는 공과를 회원과 구도자들의 필요에 따라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격리 조치나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락할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시에라리온의 개종자 침례 수는 전임 선교사가 있을 때보다 약간 낮은 수준일 뿐이며, 덜 활동적인 많은 회원이 활동을 재개했기에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희망이 있는 큰 이유

질병이 발생하는 동안 실업률은 60%를 넘어섰다. 농작물은 격리 조치 때문에 시장에 배달될 수 없었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시에라리온 앞에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성도들은 충실하며 교회는 변창하고 있다. 시에라리온 홍보 위원장 마리아투 브라우니가 다음과 같이 말한 대로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교회가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한, 또 우리가 나란히 협력하는 한, 희망을 품어야 할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라리온의 성도이기에 우리는 절대 외톨이가 아닙니다.” ■

리몬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되다

어느 여름, 확대 가족을 보러 가는 여행 중에 12년이나 되고 주행 거리가 아주 긴 미니밴이 수명이 다해 결국에는 멈춰 섰다. 우리는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우리가 미국 콜로라도 주 리몬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8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 지역 정비사가 안 좋은 소식을 전했다. 트랜스미션을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이 오는 데 최소한 5일은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현금이 부족하긴 하지만 텐트와 캠핑 장비들이 있어서 지역 야영장에서 머물기로 했다.

가족과 친구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게에 가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지부 회장에게 연락해서 교통 수단을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는 도슨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30분도 안 되어서 조그만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원 두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기쁘게도 우리는 한 가족이 야영장에서 불과 한 블록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우리가 전화한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다음 주 동안 바람많은 콜로라도 평원에 있는 조그만 지부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는 감동을 받았다.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은 그 첫 날 우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저녁을 대접해 주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집 딸과 노는 동안, 우리는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른 회원의 차를 타고 가서 우리가 머무는 동안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구입했다.

지부 회원들은 우리가 처음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계속 도와주었다. 그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우리를 태워 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마을 기차 역사 박물관에서 추억을 쌓도록 도와주었다. 마을에 우박을 동반한 폭풍우가 지나갈 때 우리 자녀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해 주었다. 회원 중 한 분은 남편에게 며칠 동안 일을 하게 해 줘서 차 수리비를 지불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 주었다.

매 저녁마다 그 조그만 지부 회원들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고, 그들의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해 주었다. 떠날 때가 다 되었을 무렵에는 한 회원이 우리를 자신의 목장으로 데려가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타는 것을 배우게 해 주었다.

일주일 후, 우리를 돌봐 주고 집에 있을 때처럼 편안히 느끼게 해 준 새 좋은 친구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리몬을 떠났다. ■
크리스티나 와들리, 미국 미주리

우리는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우리가 콜로라도 주 리몬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8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

대 학교에서 첫째 공부를 마친 후 나는 성경을 더 잘 이해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들었던 몇몇 종교 그룹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그것을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기로 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내가 듣는 수업 중의 하나를 위해 나는 파트너와 함께 실험실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고, 내가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기를 기도했다.

내가 실험실에서 자리를 잡자 곧 한 학생이 다가와 파트너가 있는지 내게 물었다. 그는 자신을 링킨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지난해에 학교에서 그를 본 기억이 없어서 전학을 왔는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로 봉사하고 막 귀환했어.”

나는 링킨에게 그의 교회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쁘게 그 질문에 대해 답해 주기로 했다.

다음 석 달 동안 나는 물문경과 성전, 후기 성도 선지자, 그리고 현대의 계시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물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느 주말에 우리 학교가 큰 경기에서 졌다. 실험실에서 있던 몇몇 선생님들은 경기에서 진 것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다. 링킨은 그 선생님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멈춰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나?” 그들은 약간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링킨이 답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가장 좋은 친구이니깐요.”

그 순간 교회에 대한 내 조사가 지적인 활동에서 신앙의 문제로 바뀌었다. 만약

이 종교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낸다면 그것은 이 종교가 중요한 모든 면에서 기독교라는 뜻이었다.

나는 링킨과 그날 저녁 헤어지면서 언젠가 그와 함께 교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회에 참석한 후 나는 물문경을 한 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선교사와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2년 동안 교회를 알아봤고 회원들과 시간을 보냈다. 나는 진지한 남자와 여자들이 부지런히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애쓰는 일관적인 양상을 보았다.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노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수 차례 성신이 증거해 주었다. 그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이 감리하고 주님에 의해 직접 인도되었다.

나는 침례를 받았고, 회복된 복음과 그 가르침에서 오는 축복을 이제 10년 넘게 누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알기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실험실 파트너를 찾게 해 달라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

마이클 헨드릭스, 미국 와이오밍





그 부활절 주일에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밭에 걸린 잡초들은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일요일 파종

몇 년 전, 부활절 주말 직전에 한 주 내내 비가 내렸다. 나는 서아프리카 베냉에 있었지만, 토고에서 부활절을 보내려고 집에 가고 있었다. 내가 도착한 토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그날 밤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일요일 오전 9시에 교회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비가 퍼붓는데다 방금 도착했기에 그 시각은 너무 이르다고 단정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좀 늦게 교회로 가서 오전 10시쯤에 도착해야지.”라고 생각한 후 남동생을 보러 갔다. 나는 동생에게 “9시에 교회로 가는 대신에 집 곁에 있는 밭으로 가자.”고 말했다.

도착했을 때 우리는 땅이 비에 알맞게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오늘은 일요일이니 교회에 가려면 10시까지 기다려야 해. 가기 전에 콩을 좀 심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동생과 약 6평방미터 조금 넘는 작은 땅에 콩을 심었다. 그런 후 한 시간 늦게 교회에 갔다. 다음 날 우리는 다른 땅이 있는 근처의 읍으로 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옥수수와 더 많은 콩을 심었다.

두 달 후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집 곁에 있는 작은 밭을 살펴보러 갔다. 밭으로 들어가자 밭에는 밭에 걸리는 잡초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땀소사, 부활절 주일

분명히 이곳에 콩을 심었는데!” 하고 혼잣말을 했다.

자라고 있는 것은 잡초뿐, 우리가 심은 씨앗에서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런데 부활절 다음 월요일에 다른 밭에 심은 콩과 옥수수는 잘 자라고 있었다. 그때 이후로 집 곁에 있는 밭에 심은 것은 무엇이든 정상적으로 자랐다.

밭에 걸린 잡초들은 그 부활절 주일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 후 나는 하고 싶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날에는 할 수 없다는 걸 명심했다. 대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걸 늘 잊지 않는다. ■

디시레 코아미 그베장니, 서아프리카 토고

나는 루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후 자 사는 여성으로서 예기치 않았던 재정적인 부채를 경험한 후로 나는 부업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얼마 후 우리 와드에 있는 마티 자매가 내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선교 사업을 갈 예정이라 그녀의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 원호 생활 시설에서 살고 있는 나이 든 여성인 루스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티는 그녀의 일을 내게 권했고, 루스가 내 일에 대한 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월요일에 마티와 루스는 내가 할 일에 대해 설명했고, 며칠 후 나는 일을 시작했다. 나는 루스의 세탁물을 챙겨 이층 세탁실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루스의 세탁물을 챙겨 이층 세탁실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스는 달려와 내게 고함을 질렀다.

내가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스가 달려와 내게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먼저 물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의 옷을 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단지 그녀와 마티가 하라고 요청했던 일만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좌절감과 상한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나 문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었다. 내가 마티에게 그녀가 없는 동안 루스를 보살피겠다고 약속만 하지 않았다면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왔을 것이다.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에도 루스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녀를 결코 기쁘게 해 주지 못할 것 같았다.

나는 루스와 그녀의 거친 말들을 견딜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도와야만 된다는 것이 계속 억울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기도를 바꿨다. 나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루스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녀의 필요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어떻게 그녀를 도울 수 있을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내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루스에 대한 사랑이 커졌다. 루스도 변했다.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애, 기쁨 그리고 슬픔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그립다고 말했다. 과거에 했던던 멋진 일들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외롭고 슬프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매주 루스를 보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고, 그녀도 나를 보는 것을 고대했다.

루스와의 경험은 내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참으로 마음을 다해 봉사했을 때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1895~1985)이 가르쳐 주신 “봉사의 기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으면 우리 자신을 찾게 된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Small Acts of Service”, *Ensign* 1974년 12월호, 2쪽)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

존 포스, 미국 유타 주

왼쪽 삽화: 리처드 미야, 오른쪽 삽화: 엘리자 긴즈



나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느꼈다.

청년 성인들이
구주의 속죄를
적용했던 경험을
나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구주께서 도와주셨다

내가 침례 받던 날은 꿈만 같았다. 나는 정말 행복했고 어서 완벽한 사람의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깨끗한 상태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침례 받은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곧 친형제자매들과 말다툼을 했다. 침례와 확인을 받고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잘못을 한 뒤 느꼈던 낙담을 기억한다. 나는 또한 회개했을 때 완전히 새롭게 된 느낌이 들었던 것도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죄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위안을 준다는 점을 어린 나이에 배웠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나는 속죄라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속죄는 시련과 기쁨, 마음의 고통, 그리고 성공 속에서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었다. 내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을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 구주께서도 나와 똑같이 그런 느낌 때문에 어려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얻었다. 내가 어떤 것을 잘 할 때, 구주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면 내 기쁨이 몇 배로 커졌다. 왜냐하면 그분도 나와 똑같은 기분을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이었다.

애비 맥킨, 미국 유타





나는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외롭고 버려진 듯한 느낌이었다. 나를 죄로 이끌고 결국은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 가두었던 의롭지 못한 소망 때문에 힘이 들었다. 고맙게도 사랑이 많은 감독님께서 죄는 물론이고 약점과 고통, 슬픔까지도 덮어 주시는 구주의 속죄가 지닌 역할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감독님께서도 내가 발전할 때 기뻐하셨고 내가 실수할 때에는 위로해 주셨다.

구주에 대해 개념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적극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계명에 더 순종하게 되었고 구주께 더 가까워졌다.

유혹에 계속 시달리는 동안 나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구주라는 반석 위에 있을 때 내 약점은 힘이 될 수 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린도후서 12:9~10).

제이콥 에이치 테일러, 미국 아이다호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내 마음은 그다지 복음을 향하지 않았다. 선교 임지에서 나는 선교 사업이 정말 어떤 것인지 서서히 배웠고, 내가 정말로 합당할 때 선교 사업이 내 인생에 가져다줄 수 있는 힘과 발전을 누리고 싶었다. 과거의 범법으로 인한 죄책감과 슬픔이 나를 짓눌렀고, 나는 깨끗해진 상태로 주님의 손에 놓인 더 훌륭한 도구가 되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선교부 회장과 논의한 끝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 회개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집에 돌아왔던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다. 나는 경전을 달리 읽고 실제로 이해하고 또 적용하기 시작했다. “올바른” 것을 하는 동안에도 나는 여전히 죄책감을 상당히 느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그분이 어떻게 해서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의 무한한 속죄가 어떻게 나의 영혼을 구속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했던 구절들에서 배웠던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영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과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고 죄책감이 떠나갔다.

처음 집에 왔을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개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변화는 한 번에 조금씩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온다는 것을 안다. 회개하려면 좀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기 위해 우리 마음과 소망, 습관을 변화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회개에는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 우리 마음과 소망,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한 순간에 180도 돌변할 수는 없지만, 속죄로 인해 그런 변화들이 온전하게 일어날 수는 있다.

익명, 미국 조지아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마음의 상처가 하도 커서 내 생활의 모든 면에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내 인생에 있었다. 나는 수업이나 학교 과제에 집중할 수가 없었으며, 급우들과의 관계도 불편해졌고, 항상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나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낼수록 화가 더 났다.

결국 나는 슬픔과 분노를 끝내기로 작정했다. 그런 짐을 계속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내가 용서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애원했다. 내가 알아채기도 전에 고통은 감당할 만해졌다. 고통이 사라지는 않았지만, 감당할 수는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구주의 속죄는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유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배웠다. 내가 짐을 진 채로 겸손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갔을 때, 그분은 내가 지닌 상처와 고통, 아픔을 지고 가는 데 도움을 주셨다.

대니 로리셀라, 미국 캘리포니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을 때 나는 영원한 가족에 대한 내 모든 희망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 인생에서 정말 힘든 순간이었다. 하지만 내가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시련은 예상하지 못한 축복을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주었다. 한 가지 축복은 어머니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구주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슬픔을 이겨 내기 위해 나는 페루에 계시는 이모를 찾아뵙기로 했고, 거기서 내게 큰 힘이 된 새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와 나는 경전을 자주 함께 공부했는데, 우리가 복음 주제를 토론했던 어떤 특별한 날 나는 구주의 사랑을 아주 강하게 느꼈다. 그 느낌은 마치 구주께서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단지 네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지.”라고 말하시는 것 같았다.

이제 나는 구주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며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신앙보다도 더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고, 구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속죄는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릴리아네 소아레스 모레이라, 브라질 바이아



완벽한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구멍이 하나 있다고 믿었어요.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틀렸어요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일곱이었어요
그분 손에 있는

두 구멍은
사람들이 못 박아 난 것
그분이 죽어서
살리고자 한
사람들의 성화에 못이겨
십자가에 달리셨네

그분 손목에 있는
두 구멍은

사람들이 확실히 못 박아 난 것
그분의 고통이
끝나기도 전에
그분 몸의 무게로 인해
그분 손이
찢겨 나가지
않게 하려고 한 것

그분 손에 있는
두 구멍은

서 계시던 곳에 난 것
그분 자녀들
하나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증거였어요



옆구리에 있는
한 구멍은
그들이 찢렸던 곳에 난 것
그분의 일이 끝났음을
보이기 위한

일곱 개의
완전한
일곱 개의 완전한 구멍
지상에 살았던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속죄
우리 인생에 난 구멍을 고치려고
그분의 구멍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내가 틀렸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에 난 구멍은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였어요

케이스 해머, 미국 유타

구주의 부활에서 위안을 찾았다

내가 23살 때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할머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고, 아직도 비교적 젊은 편이셨는데, 그분의 죽음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었다. 물론 나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사람도 많고, 할머니께서 편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생에서 그분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 생각하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런 슬픔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 친절한 방문 교사들과 친구들이 따뜻한 글귀와 음식을 가져다주었고, 다정한 이웃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구입한 책 한 권을 집에 들러 전해 주었다. 그 책에는 구원의 계획과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선지자들의 말씀을 동생과 함께 소리 내어 읽으면서 가장 감미로운 평화가 내 마음 속에 깃드는 것을 느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되어 다음 생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며]” 모든 것과 사람들이 그 적절한 곳으로 회복될 것임을 알았다.(앨마서 40:3; 또한 앨마서 41:2 참조) 나는 세상을 떠난 분들을 포함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속죄로 인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점에 대해 나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아만다 실리, 미국 유타

과테말라의 신앙 문화

리사 로페즈
교회 잡지

교회가 과테말라에 처음 들어온 이후로 68년 동안 회원 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과테말라는 우리가 무성하며 다양한 마야 문화가 있는 나라이다. 과테말라는 아름다운 나라임에도 종종 가난과 정치적 갈등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가난한 나라라는 뜻은 아니다. 고향이 과테말라시티인 25세의 메르시 아렌스는 국민 대다수가 서로 다른 종교를 용인하고 인정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느낀다. 그녀는 말한다. “과테말라 문화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종교적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와 환경은 매우 우호적이고 활기가 넘치고요.” 그렇긴 해도 자신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또래를 찾이란 늘 쉽지 않았다.

“물몬이즘에 관해 들어 본 적이 없는 일터나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표준은 극단적으로 비치는 것 같아요.”라고 그녀는 말을 잇는다. 그렇다고 해서 메르시는 그런 점에

낙담하지 않으며, 교회 부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런 활동에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저와 같은 목표와 원칙이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관계를 맺게 되죠.” 메르시는 영적 경험을 나눌 친구가 있으면 간증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됨을 알았으며, 이런 우정 덕분에 예기치 않은 축복을 받았다. “저는 보통 친구들과 사귀기 때문에 데이트가 쉽게 느껴졌어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친구들을 보니 더 자연스럽게 그들을 알게 되더군요.”

메르시는 가끔 결혼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을 시인하지만, 매사가 잘되리라는 안도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저는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고 함께 영원한 가족을 이룰 동반자를 만나기를 고대해요.”

메르시가 받은 모든 축복 중 특히 도드라지는 축복이 있다. “저는 열다섯 살에 어머니를 여의었죠. 어머니가

**메르시 아렌스는
표준을 공유하는
친구들의 도움이 있을 때
그런 표준을 지키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았다.**

돌아가시자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이런 의문들과 그에 대한 답은 제 인생에 철저히게 영향을 끼쳤죠.” 메르시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어린 소녀 시절에 어머니가 해 주던 것과 같은 포용을 언젠가 어머니에게 해 줄 수 있으리라는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녀는 “복음 진리가 매일의 생활과 활동에 빛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저는 제가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



메르시에 대해 더 알아보기

가장 좋아하는 과테말라 음식은?

붉은 감자와 긴 쇠고기 조각으로 만든 스투인데 “힐라차스”라고 해요. 어떤 이들은 깍지 콩이나 당근을 넣기도 하지만, 저는 감자만 넣은 걸 더 좋아하죠.

좋아하는 장소는?

과테말라는 자연 경관이 뛰어난 곳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아티틀란 호수와 마야 문화가 물씬 풍기는 인근의 작은 도시 파나하첼입니다. 이곳 토착민들은 전통 언어를 보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저는 그들이 손으로 짠 색감 있고 오밀조밀한 의상에 감탄하곤 해요.

과테말라의 고등 교육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죠. 문맹은 국민 중 상당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다수 청년 성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제적 책임과 맞닥뜨리게 되므로, 대학교 진학과 온종일 일하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하죠. 하지만 교회는 회원들이 고등 교육을 접하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되어 왔어요.

과테말라 현황

수도: 과테말라시티

언어: 스페인어

숫자로 보는 과테말라

인구 14,647,083명(2014년 7월 현재 추정치)

21개의 국립 공원

3개의 활화산

과테말라의 교회

후기 성도 수 247,7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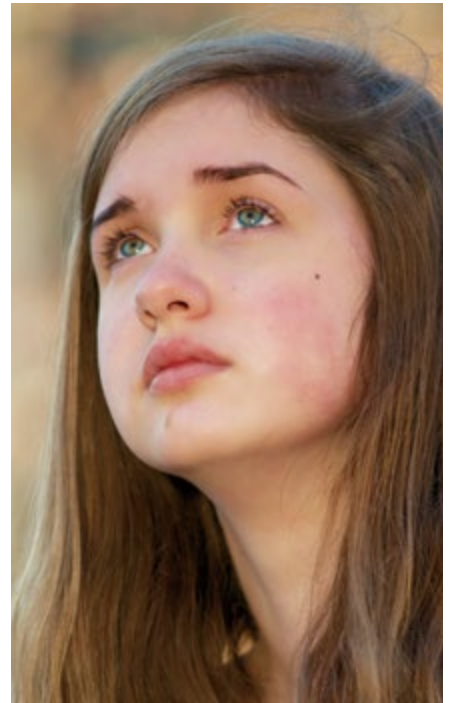
와드 및 지부 417개소

성전 2곳

선교부 6개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법

회개는 광범위한 주제이지만 오늘 저는 이 기본적인 복음 원리에 관하여 다섯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 회개하라는 권유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구주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분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그 자체를] 누리[자]”(모세서 6:59)는 권유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거나 다른 이에게 변화하라고 권유하지 않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실천해야 할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회개는 변화하고자 분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구주께서 우리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겿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분의 고통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진정 부지런히 노력을 쏟은

다음에 그 수고를 보완하고 보상해 주시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니파이후서 25:23 참조) 진정한 회개,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끊임없는 시도가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에는 분명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셋째, 회개는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문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회개란 천성적으로 범하기 쉬운 죄를 버리는 것[과 더불어]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회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께로 완전히 향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넷째, 회개를 하려면 진정한 의도, 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인내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회개 단계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면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것도 느껴거나 변화시키지도 못한 채 기계적으로 각 단계에 표시만

하고 회개의 과정이 끝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엇보다 중요한 다음 두 가지 회개 요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다섯째, 회개할 때 치르는 대가는 그것이 무엇이든 용서가 낳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주님의 무한한 고통과 사망, 부활이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힐라맨서 14:18) 한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또한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회개라는 신성한 은사는 현세와 내세에서 행복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저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담아 모든 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권고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 이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현세뿐 아니라 영원히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

2011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생수를 찾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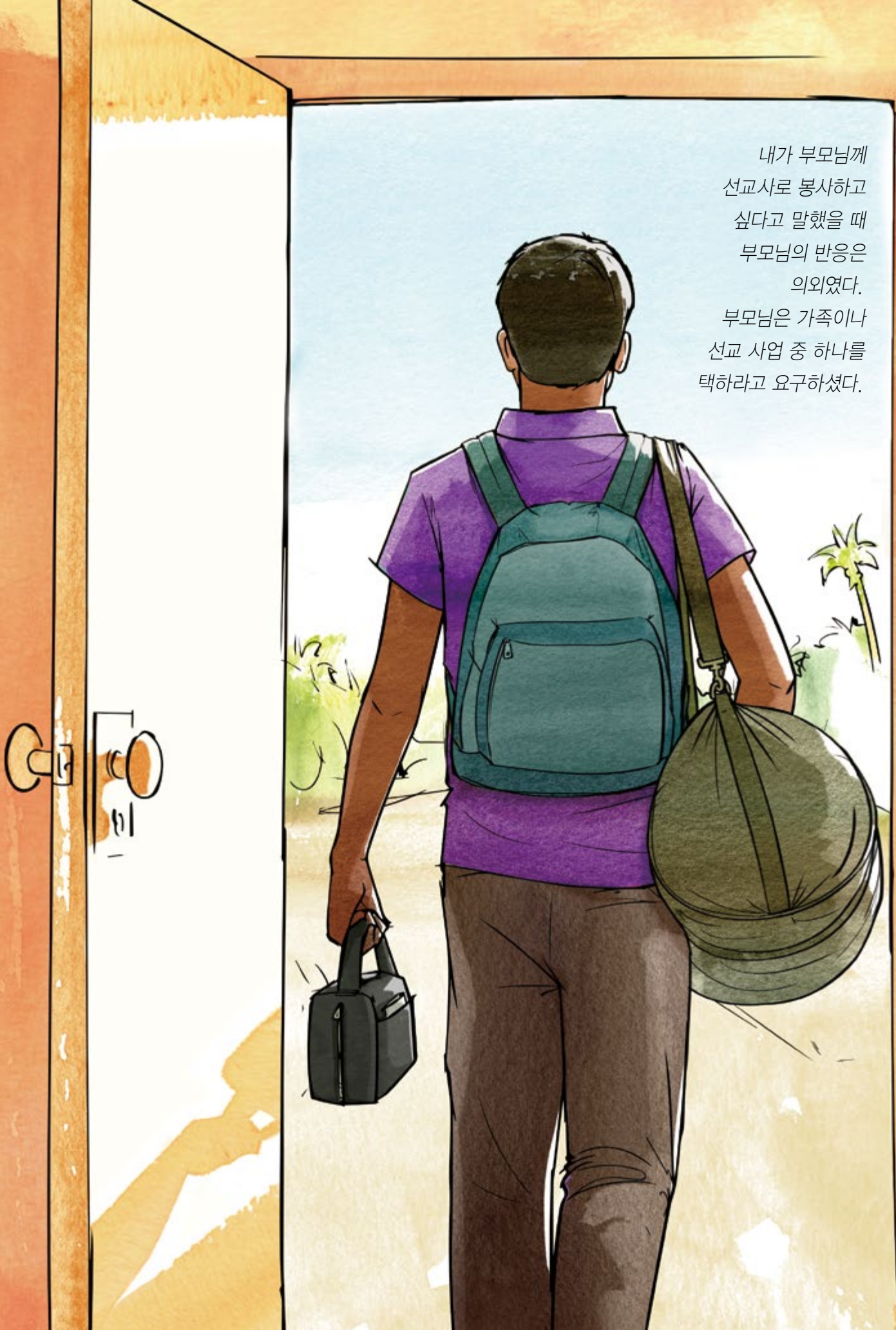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내가 부모님께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의외였다.
부모님은 가족이나
선교 사업 중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셨다.



머물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멜빈 론달라

나를 가르쳤던 선교사가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따라올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을 나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다. 이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는 16세에 침례를 받았으며, 우리 가족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다. 8개월 후 나는 막내 동생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18세가 되었을 때 전임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사업을 돕고 싶었다. 나는 부모님께 내 계획과, 사람들이 복음의 원리와 의식을 받고 그대로 생활하도록 돕기 위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권하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를 간절히 말씀드렸다. 그분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분들은 선교 사업을 떠나려는 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내가 가족이나 선교 사업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즉시 나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건물로 가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어 보았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나 선교 사업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둘 다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동안

선교사들이 한 말이 생각났다.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것을 행하십시오.”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 나는 가족들의 감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사무엘상 15:22). 주의 영이 나를 채워 주었고 나는 강화되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가족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했다.

집에 돌아갔지만 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나를 쫓아냈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셨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짐을 꾸렸다.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는데,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모든 가족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언젠가 내 가족이 이 아름다운 계획을 이해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집에서 불과 몇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잡으셨다. 어머니는 나를 안으시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다. 나는 집을 떠나면서 자녀가 떠나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고, 나에게 대한 사랑으로 어머니가 울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다.

일 년 남짓 나는 구도자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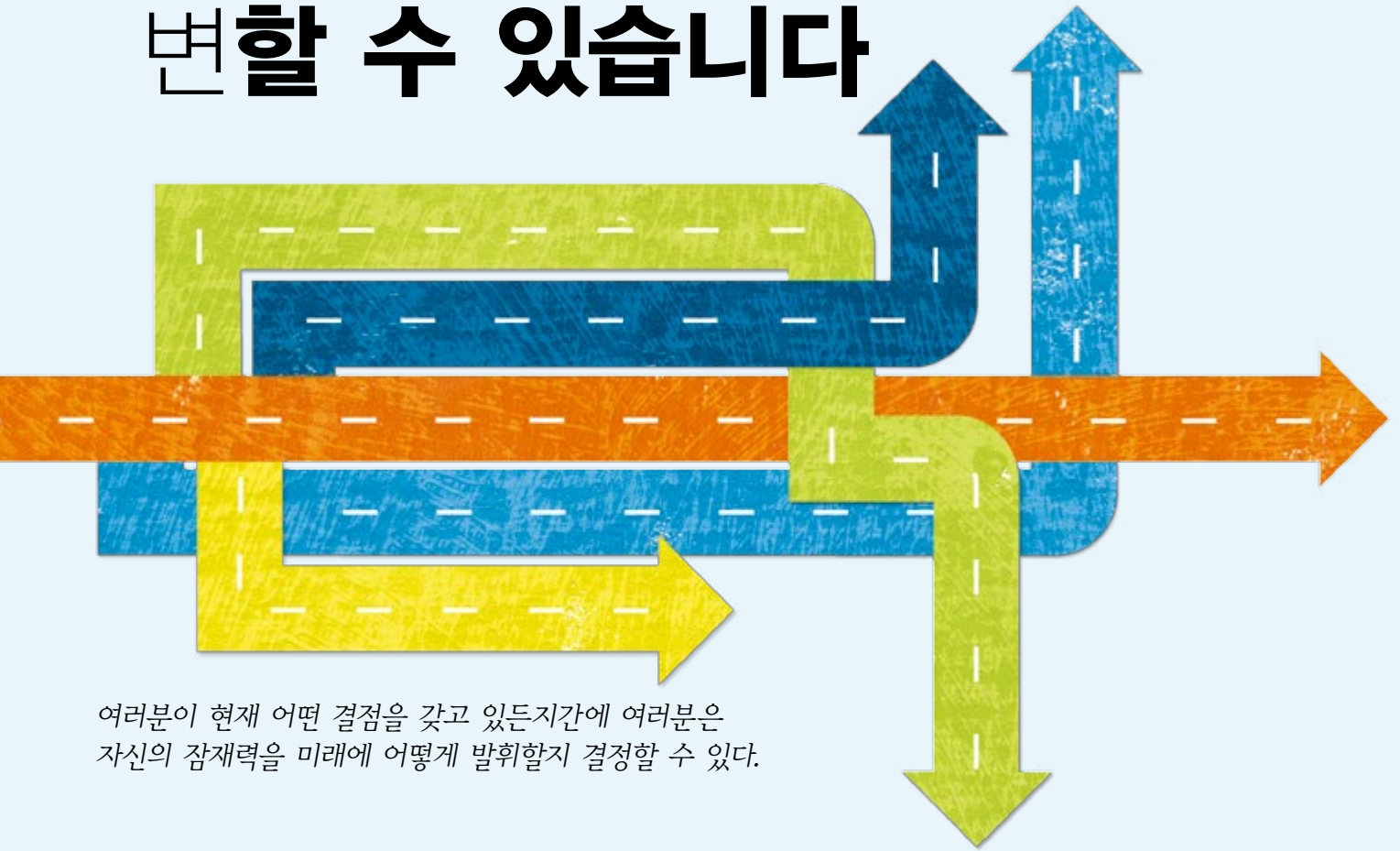
만났던 귀환 선교사 집에서 머물렀다. 주님은 니파이전서 3장 7절에 있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 그분은 내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분은 이 비이기적이고 관대한 사람을 보내셔서 내가 선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 나는 어려움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꼈다. 이 사랑으로 나는 역경을 이겨 내고 필리핀 카우아얀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로 성별되었다.

몇 달 후 나는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가족들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나는 언젠가 내 가족 모두가 교회 회원이 되어 성전에서 영원을 위해 인봉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으리라는 신앙과 희망을 결코 잃지 않았다.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후 나는 그 꿈이 이뤄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다. 나는 어머니께 침례를 베풀 수 있었고, 어머니는 이제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 나는 자주 가족을 만나며 우리는 전에 없이 가까워졌다. ■

글쓴이는 필리핀에 산다.

여러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결점을 갖고 있든지간에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미래에 어떻게 발휘할지 결정할 수 있다.

데이비드 덕슨
교회 잡지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 것이다. 졸업 후에 무슨 일이 생길까? 나는 준비가 됐나? 친구들과 계속 연락이 될까?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졸업식장에서 내 이름이 불리고 내 차례가 되어 모든 사람 앞으로 걸어나갈 때 나는 한 가지 질문만 떠올렸다. 내가 정말 졸업하는건가?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학생은 전혀 아니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내가 바라는 “해야 할 일” 목록에 없었다. 졸업반 때는 한 과목을 너무

못해서 그 과목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 주 초에 본 학기말 시험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점수는 일주일 후에나 알 수 있었다.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가까스로 턱걸이해서 졸업을 했다. (휴우!) 그 당시 선교사로 나갈 나이인 19세까지 14개월 남아 있었다. 나는 그동안 선교 사업을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할 작정이었다. 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학교에 갈 계획은 없었다.

지난 결과로 인해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위험

여러분은 이와 같이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과거 어느 부분에 대한 평가 같은 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는가?

그런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 중의 하나다.

칠십인 회장단의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그게 제 본 모습이라고요.”라고 하며 자신을 단정해 버린다면, 그것은 변화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 됩니다.

백기를 들고 무기를 내려놓고, 전투를 포기하고 항복해 버림으로써 승리할 가능성을 아예 상실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¹

여러분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다면 학교는 특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여러분의 성적표에 있는 몇몇 과목의 점수가 나쁜 것으로 여러분은 그 만큼밖에 할 수 없다고 자기의 능력을 단정하기가 아주 쉽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홀스트롬 장로가 말씀했다.²

새로운 시작

의심하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계속적인 속삭임이 귓가에 들릴지라도, 우리는 항상 앞을 바라보고 과거의 일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멈추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새로운 시작에는 뭔가 놀라울 정도로 희망적인 면이 있습니다.”³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께 성공하길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성신과 지도자들의 인도와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인다.

아마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 일상 행위와 선택은 우리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많은 선택이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빼앗고 가장 좋은 선택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⁴

여러분이 변할 수 있음을 발견함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는 후 3년 반이 되어 갔다. 나는 약 1년 반 정도 일을 한 후 2년간 선교 사업을 했고, 결국 대학교 공부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내가 많이 성장했고, 학교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그 전보다 더 두려워졌다. 고등학교 때에도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대학 공부를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내내 하나님을 내 공부에 관여시키기로 나는 결심했다. 나는 새롭고 더 좋은 학습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 놀랍게도 나는 그 학기에 매우

좋은 성적을 내서 장학금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다. 나보다 더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놀라긴 했지만, 나는 지난 달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훌륭한 학생이 되는 것을 배워 나가는 내내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때 내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 순간 이후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길은 대학 졸업과 그 이후까지 나를 이끌어 주었다.

우리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때 주님을 그 과정에 관여시키고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새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결코 가능하리라고 믿지 않았던 높이에 도달할 수 있다. ■

주

1. 도널드 엘 홀스트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3쪽.
2. 도널드 엘 홀스트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53쪽.
3.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 *리아호나*, 2014년 1월호, 4쪽.
4. 쿠엔틴 엘 쿡,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9, 48쪽.





일요일 공과

..... 이번 달 주제:
계명

세상에 속하지 **않음**

그리스도의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여 러분은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은 단순한 구호이거나 낱말을 멋지게 배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신 말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을 상상해 보자. 그분은 사도들을 만나, 그들 발을 씻기고, 가르치고, 성찬을 집행하셨다. 그날 밤 어느 시점에 주님은 사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셨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한복음 17:15~16, 18).

구주께서는 친히 세상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온전한 생애를 사셨다. 그분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악을 피하셨다. 그분은 제자들 및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죄인들 및 외식하는 사람들과도 교류하셨다. 그분은 모든 이에게 모범이셨다.

그분은 “내가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단다.”라는 매정한 말을 제자들에게 그저 남겨 두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 달라고 간구하지는 않으셨다. 지상에 계실 동안, 또한 현대의 선지자들 및 사도들을 통해, 구주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다.

세계 곳곳에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복도에서 오가면서, 친구들과 사귀면서, 과외 활동에 참여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구주가 한 편이 되어 주시고 마음 속에 복음을 간직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았던 청소년들이 있다. 몇몇 청소년들이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를 읽어 본다. ■

열심히 참여함

우혹과 마주칠 때 저는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또는 “이렇게 하면 내가 해의 왕국에 더 가까워질까?”라고 자문해 봅니다. 저는 정말 피곤해도 매일 아침 세미나리에 가는데,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이나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려는 목적을 갖고 경전을 읽는 것은 저를 돕는 인도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임에 참석하면, 사탄을 더 잘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과 교감할 때, 그분은 우리가 겪는 복잡한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브렌다 에이치, 17세, 미국 미네소타



옳은 것을 창의적으로 선택함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표준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표준을 지키면서도 그들과 교류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1922~2015) 장로는 오래전에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 페리 장로가 참석했던 사교 모임에서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려면, LDS.org로 가서 “의롭고 균형 잡힌 삶의 전통”(리아호나, 2011년 8월호, 30~37쪽) 기사를 읽어 본다.

다른 사람에게서 힘을 얻음

저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표준을 지킵니다. 물론 비회원 친구들을 활동으로 초대하면 그들이 보고서 제가 이런 표준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과 큰 오빠가 제게 좋은 모범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이는 좋은 친구들이 제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발전시키고 싶은 훌륭한 성품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셀리나 더블유, 15세, 독일



자기 의견을 말함

덴 마크에서는 교회에 다니고, 술을 마시지 않고, 높은 표준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밝히면, 또래들도 곧 존중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돌보는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머 케이, 18세, 덴마크

일요일에 깊이 생각할 것들

- 여러분이 다음 번에 유희과 마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게” 간구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 구주의 생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어떻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그분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에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여러분 친구와 가족에게 물어볼 수 있다.



여러분의 빛을 나누십시오

몇 년 전에 우리 럭비팀이 일주일 동안 대회에 참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과 부모님, 교회 지도자들과 7일 동안 떨어져 지냈습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우리 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묵던 호텔에서 그 주에 거의 매일 저녁 시간에 다른 팀들은 음악을 크게 틀고, 춤추고, 마시고, 담배 피고 서로에게 거칠게 고함치며 방에서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우리 팀은 경전 공부를 하고 저녁 영적 모임을 갖는 전통에 따라 방에 모였습니다.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올바른 일을 하니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른 팀들은 놀라면서 우리를 지켜보더니 우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저녁 영적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 같았고, 우리에게 와서 같이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 주에 우리는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빛을 말할 수 있었고 우리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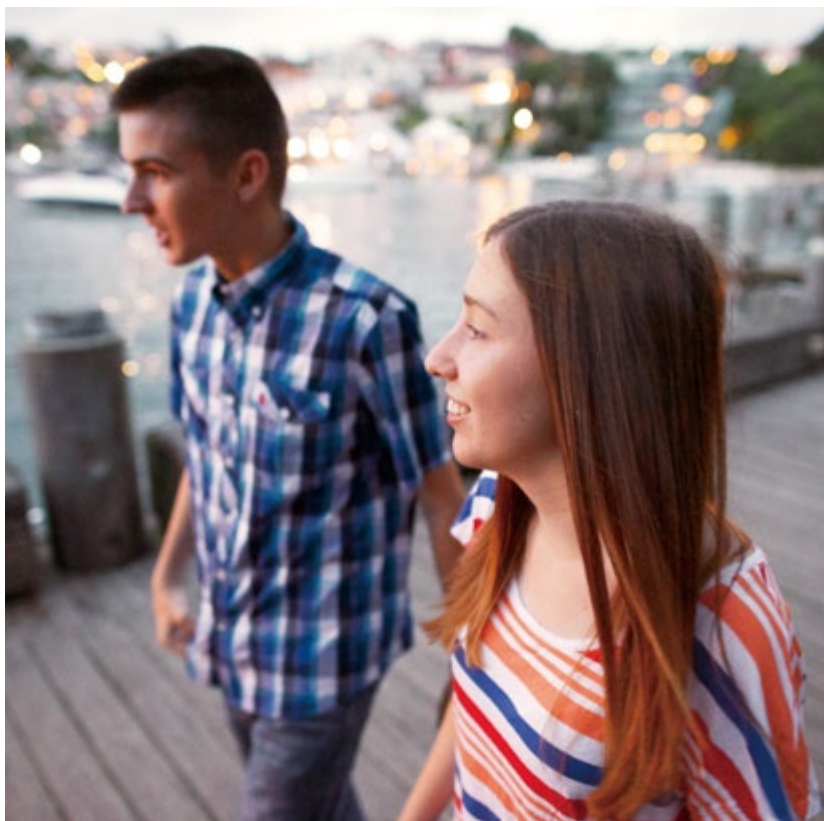
엘리사라 이, 20세, 사모아

해답을 찾아서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는 **신앙개조 제8조**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다른 경전에 비추어 손색이 없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 성경을 믿고 경외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는 분명 … 거룩한 경전을 추가로 갖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을 뒷받침하는 경전이므로 결코 성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성경의 기적”,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1쪽)

신앙개조 제8조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다.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번역(translate)이라는 낱말은 어떤 것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으며, 옮기거나, 전달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원본에서 옮긴 다양한 번역에서 오류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고대 본문을 현 시대로 전하면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졌다]는”(니파이전서 13:28) 점이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잃어버린 가르침도 있었다. 조셉 스미스가 경험했듯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수많은 다른 해석들을 갖게 된 것이다.(조셉 스미스-역사 1:12) 현대의 계시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분명히 하고 또 입증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잃어버렸던 다른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다.(니파이전서 13:39~40 참조) ■



나는 **소년**이다. 나는 **소녀**들에게 더 **정숙하게** 옷을 입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무례하지 않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꺼낼 때는 부디 조심하기 바란다. 어떤 청년들은 전적으로 정숙하지 않은 의도로 정숙하지 않은 복장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들이 정숙하지 않은 복장을 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당황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심하고 일관된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정숙한 복장에 관한 일반적인 주제가 거론될 때에는 정숙에 관한 주님의 표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되 개인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아울러 반드시 여러분의 복장 표준과 행동은 믿음과 일치해야 한다. 청년들은 여러분이 옷 입는 방식을 주시할 뿐더러 여러분이 정숙하지 않은 복장을 한 청년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지, 아니면 정숙한 복장을 한 청년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지를 분명히 주시한다. ■

세미나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얼마간의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들 청소년들은 세미나리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안다.

“한 시간 덜 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한 시간 더 제 자신을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매건 시, 17세, 미국 캘리포니아

“세미나리 때문에 제 간증이 아주 커졌고, 또 경전에 대해 더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세미나리 때문에 구주께서 겻세마네에서 치르신 희생에 대한 제 간증이 더 강해졌습니다.”

비나 시, 17세, 중국 홍콩

“세미나리는 제가 영을 느낄 수 있는 변치 않는 곳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유일한 활동 회원이지만 부모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세미나리 때문에 제가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아만다 엘, 17세, 미국 유타

“세미나리는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발판을 만들어 줍니다. 나쁜 생각이 들려 하면, 세미나리 공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리가 수업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릭 지, 15세, 영국 입스위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세미나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세미나리를 통해서 교회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복음이 참되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래 엠, 17세, 미국 캔터키

“결정을 내릴 때 세미나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리를 좋아합니다. 수업에서 저는 주님의 영을 느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인을 받습니다.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미나리에서 사 년을 공부하면 제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카롤리나 오, 16세, 브라질 주앙페소아

“여러분은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고 싶지 않겠지만, 세미나리에 참석하면, 매일 이런 특별한 영을 조금씩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또래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런 것을 느끼고, 어떤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

카렌 케이, 18세, 미국 메인

전 세계 후기 성도 청소년들의 공통점 한 가지는 무엇일까? 바로 세미나리다!

청소년들은 다른 많은 방법으로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등교하기 전인 새벽 5시에 일어나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청소년도 있고, 학교 정규 수업 시간 사이에 참석하는 청소년도 있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주말에 참석하거나 스카이프를 이용해 참여하는 청소년도 있다.

잠이나 주말 축구 시합 등 어떤 것을 희생하는가에 관계없이 세계적으로 390,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세미나리에 즐겁게 참여한다. 다음은 청소년들이 말하는 세미나리의 축복이다.



경전이 내게 가져온 변화

마리아 마흔리 이그라질 안다카

필리핀에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과학 고등학교가 있다.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들어야 할 과목도 많고, 수업 시간도 더 많고, 숙제를 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환경이 내게 해로웠다. 나는 이 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 나는 악기 배우는 일을 관둬야 했다. 나는 교회 활동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어떤 때에는 학교간 경연 대회 때문에 일요일에도 교회 모임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세미나리 반이 편의상 주말에 열리는 데도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었다.

어느 토요일에 세미나리 교사가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바빴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미나리 과제를 하고 성구 익히기 성구들을 공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보라고 했다.

도전 과제는 내게 활기를 주기 때문에 나는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성구 익히기 카드를 갖고 다녔다.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도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낼 수 있는 모든 짬을 내었다. 학교로 통학하는 시간에 성구를 암기했다. 수다를 적게 떨고 호주머니에서 암기 카드를 꺼내 들곤 했다. 친구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성구 카드 섞는 것이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 중에 우리의 새로운 활동이 되었다. 친구들은 내게 퀴즈 내는 것을 즐겼다. 일부는 경전을 가져왔고 심지어 다른 교회에 속한 아이들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자기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내 주위의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느꼈고, 학교 생활이 가벼워지고 나아졌다.

내 어린 세 동생들도 그 모범을 따랐고, 이제 우리 가족은 가정에서의 가족 관계에 임하는 경전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단어를 암기하는 것 이상이었다. 세미나리 교사는 내게 경전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가르쳤다. 나는 어떤 도전이나 시련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오히려도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는 구주의 말씀에서 힘과 인도와 평온을 찾을 것이다. ■

글쓴이는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산다.



세미나리를 활용함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다면, ... 그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 세미나리에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의 태도와 배우려는 열의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 세미나리는 제가 발전하고 간증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미나리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라이어나*, 2012년 5월호, 12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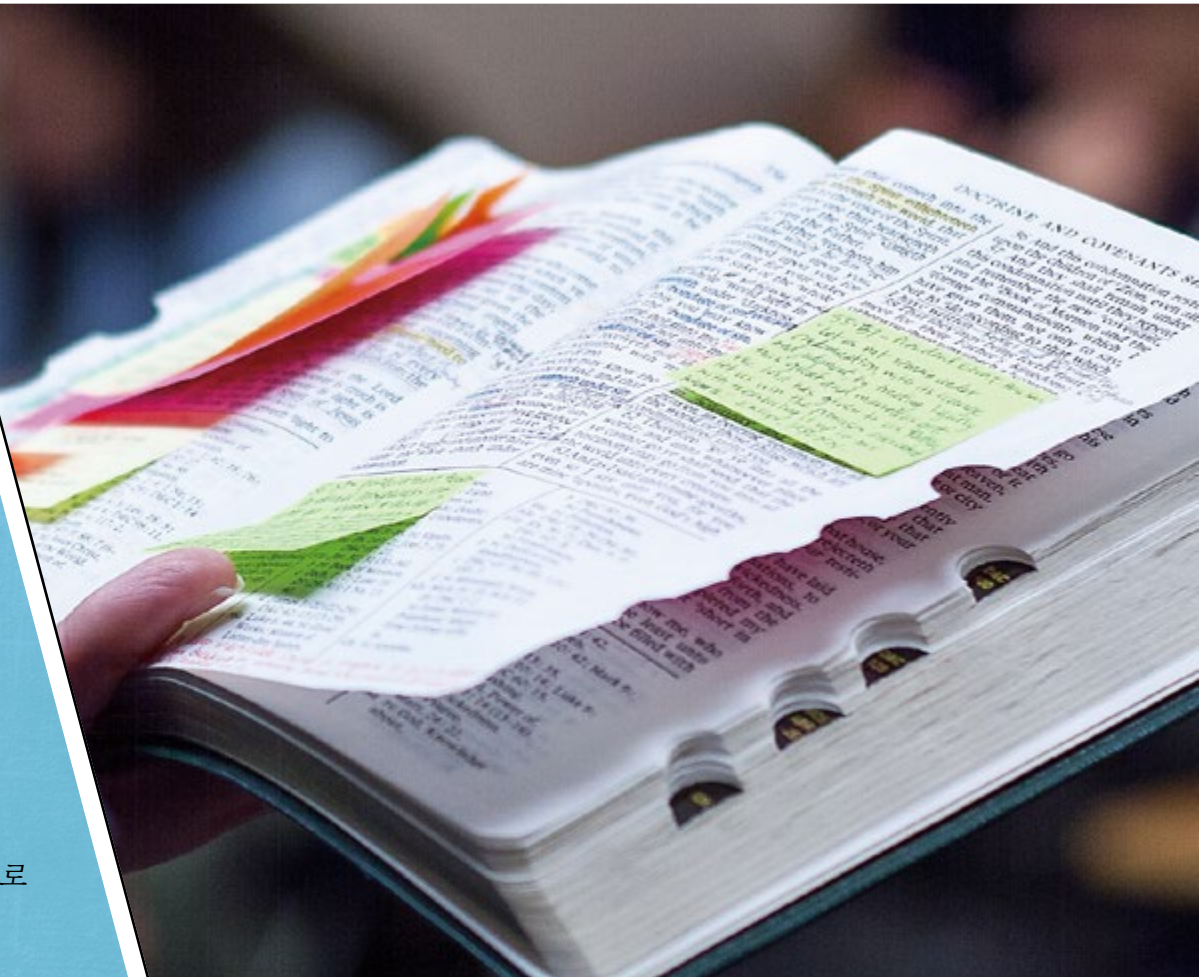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트래비스 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복음의 충만함을 스스로
알기 원하십니까?
세미나리에서
여러분의 복음 공부를
향상하십시오.

새로운 졸업 요건 사항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seminary.lds.org를 방문한다. 진지하게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함으로써 간증을 얻었던 한 청년 성인의 예로 liahona.lds.org에서 구할 수 있는 리아호나, 2009년 1월호의 “가장 유용한 지식”에 나와 있는 클레이트 엠 크리스티슨 장로의 기사를 읽을 수 있다.



“내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단순한 네 단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험을 경험한 후 어머니에게 한 말이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20) 이 말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강한 교훈이 담겨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열두 살이든 백열두 살이든, 또는 그 사이 어떤 나이이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¹

“직접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전 세계 세미나리 학생들은 이제 세미나리를 졸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추가적인 요건 사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과정을 위해 지명된 경전을 읽어야 하고 (2) 각 과정 동안 두 가지 과정 학습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은 이 새로운 졸업 요건 사항이 어떻게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과정을 위한 경전을 읽고 연구한다.

경전을 읽을 때 여러분의 개종을 더 깊게 해 줄 영의 영향력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한 학생은 세미나리 마지막 해의 필수 경전 읽기를 마친 후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간증을 나눴는데, 이는 “경전을 그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연구함으로써 경전을 진정으로 읽었기” 때문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연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다. “제가 ‘연구’란 말을 사용한 것은 ... 경전 몇 절을 읽고 나서 잠시 멈추어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시 그 구절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영감을 기다리며, 여러분에게 오게 된 영감과 통찰력을 기억하고, 더 많이 배우기 위해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²

과정 학습 평가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배운 것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과정 학습 평가는 주님의 천사가 니파이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니파이전서 11:14)라고 물어본 질문과 같다. 이 질문은 니파이가 자신이 배운 것을 평가하고 표현하게 해 주었다.

과정 학습 평가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선 두 부분은 선다형 질문과 에세이 질문으로, 이것들은 점수가 매겨진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개인 평가로, 이것은 점수가 매겨지지 않는다. 한 학생은 과정 학습 평가를 마친 후 이렇게 말했다. “세미나리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평가를 고대했어요.” 다른 학생은 과정 학습 평가가 “복음 속에서의 여러분의 현재 수준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수준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과정 학습 평가 질문의 기초가 되는 복음 교리와 원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평가가 훨씬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다. 세미나리 반에서 질문에 담겨 있는 교리에 대해 토의한 후 한 학생은 이렇게 소감을 나눴다. “그것은 평가의 본질을 좀 더 토론과 간증을 쌓는 것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굳건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배움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은 과정 학습 평가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가?

학생들의 의견:

“저는 선교 사업을 갈 수 있을 것만 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리에서 배우는 것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는 개념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커지게 돼요.”

“단지 교리에 대해 좋다고 느끼곤 어느 정도 잊어버리는 대신에 교리를 실제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멋진 경험이 될 수 있다.³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단지 세미나리에 와서 의자에 앉아 꼭 참여할 필요 없이 그냥 듣기만 하는 대신에 좀 더 참여하면서 매일 좀 더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베드나 장로는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다. “배움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고, 계속되는 영적 개인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앞으로도 살게 되고, 봉사하고, 일할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⁴

여러분이 노력을 더 기울일수록 더 많은 기쁨과 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2쪽.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너는 돌이킨 후에”,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1쪽.
3. 크레이그 시 크리스티슨,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아노라”,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50쪽 참조.
4. David A. Bednar, “Learning to Love Learning,” *Ensign*, 2010년 2월호, 26쪽.

우리들 공간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

우 리 학교 가치 교육의 달에 선생님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쓰라고 하셨다. 그 수필은 우리가 지상에 온 목적을 주제로 한 10단락짜리 수필이어야 했다. 칠판에 적힌 주제를 보자 내 마음은 위안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교회 회원인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내 목적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급우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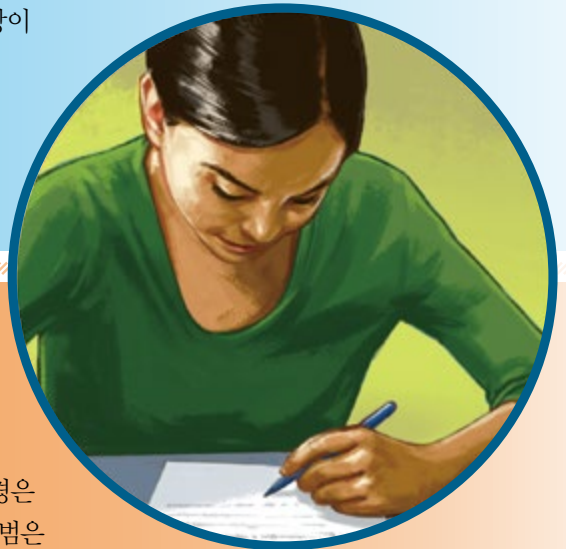
얼굴을 보자 마음이 슬퍼졌다. 왜 그랬을까? 급우들이 주제가 어렵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것과 같은 지식이 그 애들에게는 없었다.

수필을 제출할 때, 나는 유일하게 참된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았다. 그날부터 선교 사업을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 간증을 나누고 싶은 소망이

커졌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며 언젠가 그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안다. 또한 남을 섬기는 것이 나의 목적임을 안다. ■

제이미 에이, 필리핀



나에게 몰몬경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몰몬경은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할 때마다, 또는 주님의 영을 더 가까이 느껴야 할 때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몰몬경에는 충실하고 의로웠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받은 예언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복음에 관해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살던 사람들도 가족 문제부터 다른 사람이 주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것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몰몬경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들의 모범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고 신앙과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할 힘과 소망을 준다.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고대 백성들도 여러가지 시련을 겪었으나 결국 승리하여 대적이 그들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남아 있어야겠다는 소망을 더 강화한다. ■

캐롤라인 엠, 브라질 상파울루



부름받은 곳에서 봉사하며

엘 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성전이 헌납되기 직전에, 우리 가족과 나는 성전 일반 공개 행사에서 봉사하며, 회원이 아닌 분들이 성전을 방문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알게 되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결정했다. 나는 안내자가 되어 성전 안 각 방과 그곳에서 맺은 성약, 그리고 이런 성약을 지킬 때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순서가 오자 나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방에서 나오자마자 큰 단체가 막 도착하여 누군가가 추가 안내자를 요청했다. 나는 대기실로 돌아가 나에게

배정된 다른 단체를 맞이하라는 말을 들었다.

방에 도착하자, 임무가 다시 변경되어 성전에 막 도착한 분들께 비디오를 보여 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알려 줄 수 없어서 아쉬웠다.

약 반 시간 후,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는, 미국에서 온 단체가 도착하자 몇몇 자원봉사자가 영어로 이 단체를 안내할 사람을 이리저리 찾아다녔다. 주님은 우리가 꼭 있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닌, 그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안 때가 바로 그때였다.

나는 비디오 사용법과 영어로 환영 인사를 할 줄 아는 유일한 안내자였다. 그 미국 사람들은 기뻐했으며, 떠날 때에는 매우 따뜻하게 맞아 주어 고맙다고 했다.

하루를 마칠 무렵, 나는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매사를 행할 때 우리가 한 일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

에릭 에이, 엘살바도르

탕자

누가복음 15:11~32

이 페이지를 두꺼운 종이 또는 골판지에 붙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형을 오려 내고 공예용 나무 막대기 또는 종이 봉투에 붙입니다. 성경 구절을 앞에 붙인 봉투에 보관합니다. ■



아버지



작은 아들



큰 아들



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복사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성 지도자

이 여성들은 아내이자 어머니, 할머니입니다. 여기 이분들에 관한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카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캐롤 엠 스티븐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제1보좌



린다 케이 버튼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린다 에스 리브즈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
 본부 청년회 회장



닐 에프 매리엇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체럴 에이 에스플린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1보좌



로즈마리 엠 익섬 자매
 본부 초등회 회장



메리 알 더럼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

- 어렸을 때 뒷마당에 있는 바나나나무에서 남동생 네 명과 놀았음.
- 수영하기와 손자손녀에게 책 읽어 주기를 좋아함.
- 물몬경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읽기를 좋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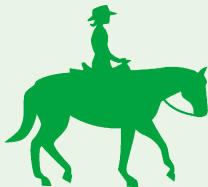
- 어린 시절 롤러 스케이트, 사방치기, 발야구, 동네에서 하는 놀이를 좋아함.
- 뉴질랜드에 살던 십대 시절 초등학교 음악 지휘자로 부름받음.
- 대학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함.



- 스티븐스 자매의 엄마가 침례 받고 아빠가 교회에 다시 다니기 시작한 후, 다섯살 때 부모에게 인봉됨.
- 합창단에서 노래했으며, 보니 래시라는 댄스팀의 주장이었음.
- 세미나리를 가르침. 종교 수업을 사랑함. 종교 교육원에서 남편을 만남.



- 어렸을 때 승마를 좋아함. 지역 로데오 퍼레이드에서 말을 탔음.
- 22살 때 침례를 받았음.
- 첫 직장으로 도서관에서 일했음. 자녀 11명에게 침대에서 이야기 읽어 주기를 좋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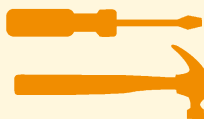
- 어린아이였을 때, 살구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두 오빠와 나무 타기를 즐겨 했음.
- 고등학교 잡지의 예술 분야 편집자였고, 대학에서 문학과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함.
- 미국 8개 주에서 살았으며, 스웨덴에서 두 번 살았음.



- 과수원과 들판에서 일하지 않을 때, 또는 놀지 않을 때 농가 다락방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함.
- 십대 때 프랑스에서 여름을 보낸 적이 있음.
- 대학 시절, 고등학교 영어 과목 교생이었음.



- 차가운 금속에 혀바닥이 달라붙었을 때 위험한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음.
- 대학에서 무용 전공.
- 어머니로서 간호사, 교사, 빵 굽는 사람,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여러 물건을 고치기 위해 자신만의 도구 상자가 있었음!



- 가끔 쌍둥이 자매와 역할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
- 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침.
- 지리 공부를 좋아했으며, 현재 정말 가고 싶어했던 나라들을 방문하고 있음.



- 미국 와이오밍에 있는 농장의 불을 꺼서 남동생이 심한 화상을 입지 않게 구해 줌.
- 독서와 스포츠, 특히 농구를 좋아함.
-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침.



“지금은 여러분의 날들입니다.
여러분은 성전과 기술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전과 기술이 있는 ‘내 날들’”, 리아호나, 2015년 2월호,
33쪽에서



“깜짝 놀라게 해 줄
것이 있는데.” 아빠가
웃으시며 말했다.



린지의 가족 퍼즐

질 해킹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 그들의
이름 알아서 성전에 들어가”(어린이
노래책, 90쪽).

아빠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자 린지는 쏠살같이 계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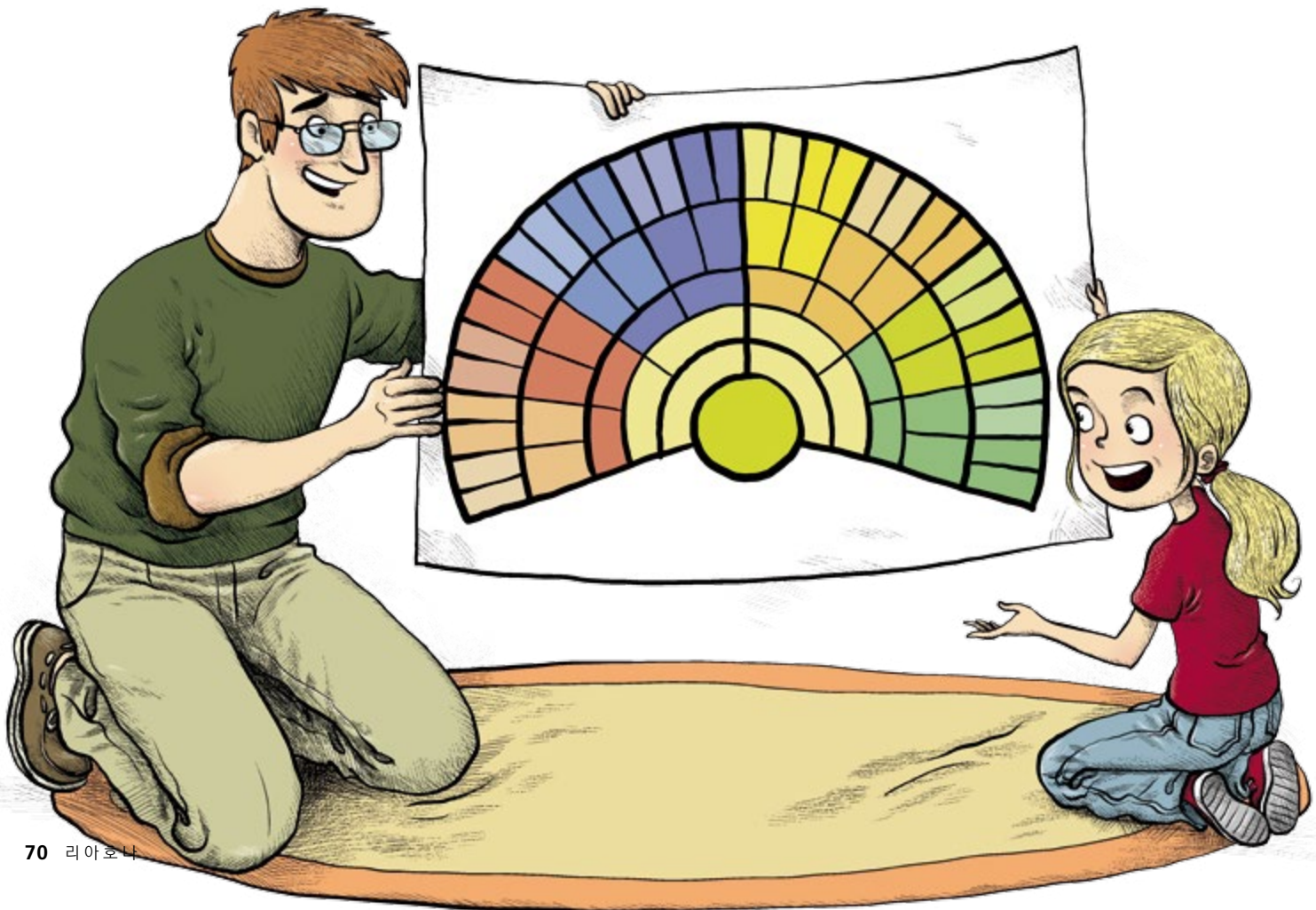
내려갔다.

요즘 그들은 가족이 함께 가족 역사
사업을 많이 해 오고 있었다. 린지가
FamilySearch 웹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아빠가 자주 도와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가족 사진과 이야기를 찾곤 했다. 하루는
린지가 할아버지가 선교 사업을 하실
당시의 아주 오래된 문서를 찾은 적도

있었다.

린지가 계단을 다 내려가니 아빠가
기다리고 계셨다. “오늘 밤에도 가족
역사를 할 거죠?” 린지가 물었다.

“그럼, 깜짝 놀라게 해 줄 것이
있는데.” 아빠가 웃으시며 말했다. 아빠는
등 뒤에 감추고 있던 기다란 두루마리
종이를 건네주셨다. 린지는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쳤다. 린지는 종이 위에 그려진 큰 부채꼴 모양을 응시했다. 맨 아래 린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린지의 이름 주위로 줄을 따라 아주 많은 이름들이 깔끔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 엄마, 아빠 이름이 있어요.” 린지가 자기 이름과 가장 가까운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있어요!”

“그렇구나.” 아빠가 말했다. “이 부채꼴 가계도에는 린지의 조상이 아홉 대까지 나타나 있단다.”

정말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 하지만 빈 곳도 간혹 있었다. 린지는 빠져 있는 이름들이 궁금했다. “제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하던 퍼즐처럼 생겼어요.” 린지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린지는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다.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퍼즐 같지. 아주 중요한 퍼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퍼즐 조각인 셈이지.”

퍼즐 조각처럼 생긴 할아버지를 상상하면서 린지는 하마터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성전 사업을 하면, 그들이 나머지 가족과 연결되는 거야,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지. 우리 린지가 퍼즐 맞추는 것을 돕고 있는 거지!”

“와.” 린지가 손가락으로 그 이름들을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 린지는 가족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더 기분이 좋았다. 린지의 모든 가족들을 영원히 함께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린지는 새로운 가계도를 자기 이층 침대 바로 위 천정에 테이프를 붙였다. 린지는 가계도를 유심히 바라보고 모든 이름을 외우는 것이 좋았다. 각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서 퍼즐 조각처럼 함께 연결된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기분이 아주 좋았다. 이제까지 린지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큰 퍼즐이었다!

어느 날 밤, 린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린지의 침대는 정말 캄캄했다. 작은 야간등 때문에 벽에 생긴 그림자가 무서웠다. 린지는 담요를 머리 위로 뒤집어쓰고 눈을 꼭 감았다.

잠시 후에 린지는 담요 위로 살짝

고개를 들고 가계도를 보았다. 자기 이름이 보였다. 그런 다음 린지는 엄마와 아빠 이름을 보았다. 할아버지 이름에 눈길이 이르렀을 때, 린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졌다.

린지는 함께 퍼즐을 맞출 때 할아버지께서 자기를 보고 미소짓던 모습이 기억났다. “아빠가 가족 역사를 하는 것을 도울 때 나는 우리 가족을 함께 연결하고 있는 거야!” 린지는 이렇게 생각했다. 린지는 더 환하게 웃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다. 린지는 이제 무서운 느낌이 더 이상 들지 않았다. 린지는 미소지며 담요 속으로 쪽 들어가서 사람들과 퍼즐, 그리고 자기 가족을 함께 연결하는 것을 꿈꾸며 잠들었다. ■

린지의 목록

린지는 여러 방법으로 가족 역사 사업을 한다! 린지는 FamilySearch.org에서 자기의 가계도를 만들었다. 린지는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을 검색한다.

린지는 가족 역사 탐험을 한다! 한 번은 빠진 기록이 있었다. 린지와 아빠는 가족 역사 도서관으로 갔다. 두 사람은 문서철을 뒤져서 서류를 찾았다. 친척들의 이름도 더 많이 찾았다!

가족 역사를 할 때 린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전 사업을 위해 이름을 찾는 것이다. 린지는 12살이 되어 성전에 가서 침례를 받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설렌다.



가족 이야기 퀴즈



캐롤린 콜튼

여기 여러분의 가족과, 가족의 이야기를 더 잘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게임이 있다!

준비

1. 재미있는 이야기, 어릴 적 이야기, 영적 이야기, 또는 휴가 때 이야기와 같은 네 종류의 이야기를 생각한다. 각 종류를 종이에 적어 벽에 붙인다.
2. 종류별로 네 가지 가족 이야기를 찾는다.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한다.
3. 각 이야기에 대한 짤막한 실마리를

생각하여 종이에 적는다.

4. 이 종이 뒷면에 100점, 200점, 300점, 또는 400점이라고 쓴다. 실마리를 각 종류 밑에 붙인다.

놀이 방법:

1. 선수들을 두 팀으로 나눈다. 누구든 실마리를 적는 사람이 팀장이다.
2. 첫 번째 팀이 “재미 있는 이야기, 200점”과 같이 적힌 종류와 점수를 고른다.
3. 팀장이 점수가 적힌 종이를 떼어

실마리를 읽는다. 팀이 실마리와 맞는 이야기를 하면 점수를 얻는다!

4. 팀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팀장은 이야기를 알려 주되 그 일이 일어난 장소나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남겨 둔다. 팀이 빠진 내용을 추측할 수 있으면 점수의 반을 얻는다.
5. 두 번째 팀이 실마리를 떼어 놀이를 시작한다. 실마리를 모두 사용하면, 점수를 많이 얻은 팀이 승리한다!

특별한 증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이웃을 사랑하고 다툼을
피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경청자가 되며, 타인의 믿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가족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따돌림과 모욕, 또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를
피해야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감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5~28쪽에서.

삽화: 에이미 베이츠





기쁘게 도움

애미 제인 레빗
실화에 근거함.

“언제나 도움 때는 행복에 넘치네”(어린이 노래책, 108쪽)

일 리엄은 갈퀴를 집 옆에 기대어 놓고 풀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낙엽
긋기는 힘든 일이었지만 윌리엄과 두 여동생 끌로에와 아멜리아는
마침내 해냈다. 알프스산 저 위로 멀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보이자,
윌리엄은 그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다.

윌리엄은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근처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을 좋아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윌리엄은 가고 싶은 곳, 만날
사람들, 언젠가 하게 될 모험에 관한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러다 옆집 뜰에서 나는 휘파람 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말자국 소리에
몽상에서 깨어났다.

“팻 아저씨는 낙엽을 긋어 널 준비를 하고 계신가 봐. 우리가 할 일을
마쳐서 물론 좋긴 하지만, 낙엽 긋기가 세 사람에게 힘들었다면 한

사람에게는 정말 힘들겠지!” 윌리엄은 생각했다. 팻 아저씨는 부인
팸이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으니 혼자서 낙엽을 긋어야
했다.



엄마는 늘 “도울 때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윌리엄은 낙엽 굽기를 마쳤기에 이미 피곤했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은 아마 팻 아저씨를 도와주는 것을 뜻하리라고 생각했다.

윌리엄은 풀밭에서 나뭇가지로 작은 집을 짓고 있는 끌로에와 아멜리아가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우리 가서 팻 아저씨를 도와줄까?” 하고 물었다. “우리가 도와드리면 꽤 빨리 마칠 수 있을거야.”

끌로에와 아멜리아는 그러겠다고 하며 윌리엄의 뒤를 따랐다.

“좀 도와드릴까요?” 나무 울타리를 따라 팻 아저씨네 뜰로 들어가며 아멜리아가 물었다.

“그래 주면 좋지! 하지만 너희 꼬마들은 오후 내내 낙엽을 굽었잖니. 틀림없이 피곤할 거야.”

“괜찮아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도울 때 행복하거든요!” 윌리엄이 대답했다.

일하는 동안 팻 아저씨는 자기

인생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분은 인디아에서 태어났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서 살았다.

낙엽을 쓰레기 포대에 담은 후, 윌리엄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뜰 안에 있는 큰 사과나무 두 그루 주위에 흩어져 있는 사과들을 보았다. 일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윌리엄은 허리를 굽혀 사과를 모으기 시작했고, 모으는 동안 썩은 사과와 좋은 사과를 가려냈다. 끌로에와 아멜리아는 뛰어다니며 사과를 쌓아 올렸다.

팻 아저씨가 창고에서 낡은 녹색 외발 손수레를 끌고 왔다. “썩은 사과는 여기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나서 좋은 사과는 집으로 가져가도 좋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과를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윌리엄이 말했다.

“나는 사과를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무엇보다도 줄 때 행복하거든!” 팻 아저씨가 대답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아이들은 팻 아저씨를 도와드리면서 그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엄마 아빠께 말했다.

갑자기 윌리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저씨가 준 사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윌리엄은 펄쩍 뛰어 책꽂이에서 리아호나를 꺼냈다. “팻 아저씨네가 이걸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윌리엄이 사과 케이크 요리법 쪽을 펴며 말했다. “오늘 팻 아저씨가 말씀했듯이, 줄 때 행복하거든요!”

“다른 이웃들 것도 만들자!” 끌로에가 말했다.

윌리엄은 싱긋 웃으며 앞으로 만날 사람들과 듣게 될 신나는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저 작은 친절과 작은 케이크로.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성찬: 예수님을 상기시킴

에린 샌더슨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는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기억하는 특별한 방법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전서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19~20)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마지막 만찬에서 사도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신체적으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물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기시켜 줍니다.

성찬 기도는 또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맺은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찬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그 주에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음 주에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나요?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더 알아보기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를 기도로 간구하셨습니다.
-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 예수님은 성신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한복음 14:26~27 참조)

가족과 대화하기

이 책갈피를 오려 내 두꺼운 종이에 풀칠하여 붙입니다. 이 책갈피를 여러분의 경전 안에 넣어 두면 성찬식 동안에 볼 수 있습니다. 책갈피를 이용해 교리와 성약 20편 77절과 79절에 있는 성찬 기도문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찬송가 책에 있는 성찬 찬송가 몇 곡을 살펴본다. 찬송가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성찬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우리가 성찬을 취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교회에서 성찬 찬송가를 부를 때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는 가족 목표를 세워 본다.

노래: “아들 보내셨네”(어린이 노래책, 20쪽)

성구: 누가복음 22:19

동영상: Biblevideos.org에 가서 “최후의 만찬”을 시청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기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나요?

나는 이번 주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는 어떻게 그분을 따를 수
있나요?

경전 공부 도움말

대부분의 찬송가에는 그 하단에 관련 성구가 있다. 어린이 노래책에 있는 많은 노래에도 관련 성구가 있다. 노래 가사에 의미를 더해 주는 관련된 성구를 읽어 본다.

새로운 느낌

프란시스레인 우르퀴디 파르판 배세르
실화에 근거함.

“이 진리 내게 성령이 말하여 주누나”
(어린이 노래책, 8쪽).



가브리엘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를 좋아했지요. 경전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했고요. 가브리엘네 가족은 밤마다 함께 경전을 읽는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들은 따뜻한

집 안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빠가 기도를 드린 후, 엄마가 물몬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었고 가브리엘은 귀담아들으려고 애썼죠. 엄마가 예수님이 어린이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자,

“엄마,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고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분은 어린이들을 각기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단다.”



가브리엘은 마음속에 새로운 느낌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언지는 몰랐습니다. 바깥 날씨는 쌀쌀했지만 따스한 느낌이 들어 활짝 웃었죠.

가브리엘은 이 특별한 느낌을 나누고 싶어서 “무척 행복하고 따스한 느낌이에요!”라고 말했죠.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거의 울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아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특별한 느낌이 바로 성신이란다. 성신은 네가 경전이 참됨을 알도록 따스한 느낌을 주시지.”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가브리엘을 껴안았습니다. “그 느낌은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 준단다.”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절 축복하고 계신 거죠. 물몬경에 나오는 어린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성신을 보내셨어요!”

가브리엘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가브리엘은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경전이 참됨을 알아요. 성신이 알려 주었거든요!” ■

글쓴이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산다.





로렌조 스노우
(1814~1901)
회장
제5대 교회 회장

구주의 방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여기란다.

편집자 주: 다음 이야기는 로렌조 스노우 회장의 아들 르로이 시 스노우가 전한 내용이다. 스노우 형제는 85세인 아버지가 와병 중인 윌포드 우드럽 회장을 계승하여 교회 회장이 되라는 지시를 받는 것을 어떻게 염려했는지 들려준다. 1898년 9월 2일, 우드럽 회장님이 서거하자 스노우 회장님은 솔트레이크 성전 제단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인도를 간구했다.

기도를 마친 후 [아버지는] 응답, 곧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특별한 것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셨기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지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나 음성, 방문 또는 현시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크게 낙심한 채 제단과 방을 나서셨죠. 해의 왕국실을 지나 커다란 복도에 들어서자 스노우 회장님에게는 비로소 영화로운 것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그분의 손녀 앨리 영 폰드의 글을 빌려 전합니다. ...

“어느 날 저녁, 스노우 할아버지가 솔트레이크 성전에 있는 그분 방에 계시는 동안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문지기가 퇴근한 후에도 성전에 남아 있었다. 야간 경비원이 아직 오지 않았기에 할아버지는 나를 정문으로 데려가 그쪽으로 나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할아버지 방을 나선 후



나는 할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서 해의 왕국실로 이어지는 커다란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를 세우시며 말씀하셨다. ‘잠깐만 앨리, 너한테 말해 줄 게 있구나. 우드럽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무렵,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여기란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즉시 가서 교회 제일회장단을 다시 조직하고, 이전에 교회 회장들이 사망했을 때처럼 기다리지 말고 우드럽 회장의 뒤를 이으라고 지시하셨단다.’ 그런 후 할아버지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왼손을 내미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1미터쯤 위에서 세 겹셨단다. 마치 순금으로 만든 발판 위에서 계신 듯이 보였지.’

할아버지는 구주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말씀하시며 손, 발, 얼굴, 그리고 아름답고 새하얀 그분의 옷을 묘사하셨고,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 희고 밝은 영광에 싸여 있어서 바라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후 할아버지는 한 발짝 더 다가오시더니 내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애야, 이 할아버지가 이곳 성전에서 실제로 구주를 뵈었으며 그분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내 입으로 말해 준 이 간증을 잘 기억하길 바란다.’”

... 저는 이 경험담을 18와드 성찬식에서 전했는데 모임이 끝나자 아서 윈터 장로님이 구주께서 성전에서 우리 아버지께 나타나신 이야기를 자기도 우리 아버지에게서 들었다고 제게 알려 주시더군요. 구주께서는 교회 제일회장단을 즉시 조직할 뿐 아니라 우드럽 회장님의 같은 보좌들, 즉 조지 큐 캐넌 회장님과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을 택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

“An Experience of My Father's(아버님의 경험)”, Improvement Era, vol. 33, no. 11 (Sept. 1933), 677, 679쪽에서; 철자법 및 대문자 사용을 현대화함.

통찰



가족에 관한 세상적인 철학이 진실한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가족에 대한 이 선언문은 세상의 철학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며,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20년 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이 이 선언문에 담긴 원리는 오늘날에도 참됨을 간증합니다.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나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느낀다.

이 청년 성인들은 구주의 속죄 효력이 회개 이상으로
확대됨을 알았다. 속죄를 생활에 적용하였던
그들의 경험을 읽는다.



44쪽

청소년



60쪽

**세미나리로
축복을 받다**

벨기에에서 볼리비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기 성도
청소년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세미나리이다!
세미나리는 학생을 치를 가치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청소년에
관해 읽고(60쪽), 새로운 세미나리 졸업 요건이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배운다.(62쪽)

어린이

**린지의
가족 퍼즐**

가족 역사가 퍼즐 맞추기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린지네 가족 퍼즐에 관해 읽고(70쪽)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이야기를 더 잘 알게 해 주는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72쪽)



70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